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JUN 1 6 1982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850 1982년 6월 15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uesday, June 15, 1982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인 쇄 인 : 박 정 서
광 고 국 장 : 송 광 호

전투중이거나 전쟁의 불씨를 안고있는 지역

지구의 곳곳서 전투

매년 7억명 참전·225만전사

포클랜드를 둘러싼 영국과 알젠틴의 전쟁이 10주째 접어들고, 주영 이스라엘대사 습격이 도화선이 된 이스라엘의 레바논 기습으로 중동지역의 전쟁기운은 또다시 어두워졌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신문지상·TV화면으로 보지않는 군소전쟁까지 계산한다면, 이 지구는 2차대전 이후 최대의 전쟁터로 화하고 있다.

토론토·스타지는 13일 세계의 참전인구가 7억160만명으로 6명중의 하나 꼴로 추산했다. 이 숫자는 2차대전당시의 통계에 겨우 육박한것으로 매년 25만명의 군인과 2백만명의 민간인이 알려지지않은 전선에서 죽어간다.

60년에 870만명이던 개발도상국의 병력이, 80년에 1천510만으로 늘었고, 이같은 병력증강추세는 조금도 늦추어질 기미가 없다는 것이 전쟁확대의 원인이기도 하다.

병력증강에 필수적인 군사비지출도 동기간에 세배로 늘어났다. 1분간 1백만달러가 세계각국의 군비로 쓰여진다.

60년이후 제3세계에서 일어난 군사쿠데타는 한국의 5·16을 비롯, 모두 76건. 제3세계국가의 반이상인 54개국이 군인들의 통치권하에 있고, 2차대전 이후 125개의 전쟁이 발발했다.

전쟁진수중의 대부분은 내전의 성격을 띄웠다는 것도 특징중의 하나이다.

매년 만명의 목숨을 삼키는 엘살바도르 내전은 게릴라전이며, 망명정권의 군대가 정권을 탈환키위해 정부군과 맞붙은 니카라구아전도 내전이다.

전쟁은 주로 아프리카, 동남아, 중동에서 일어났다.

동원된 정규군 병력수와 무기량을 비교한다면 최대규모의 전쟁은 역시 이락·이란전. 두 나라간 전쟁은 1만병력 투입의 포클랜드전쟁이나 6만동원의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전보다 큰 규모이다.

79년 캄보디아를 장악한 베트남과 연합크메르군사이의 전쟁으로, 캄보디아에서 전사한 사람의 수는 70년이후에만도 4백만이다.

그밖의 전쟁지역은 다음과 같다.

▲에디오피아 : 소련의 지원을 받은 에리트리안 독립군과 정부군과의 전투및 오가덴사막지역에서 소말리게릴라들과의 내전.

▲중앙아프리카 차드지역 : 지난주 전 국방상 하브르가 지휘하는 반란군이 자메나를 장악함으로써 이집트, 수단이 지원하는 하브르군과 정부군간의 2년아상 끌어온 전투는 클라이맥스에 달했다. 밀려난 구쿠니·웨데예대통령은 현재 인접국 카메룬에 피신했다.

▲아프가니스탄 : 79년 소련군의침공이후 게릴라전이 그치지 않는다. 지금까지 양측의 인명피해는 10만내지 20만에 육박하나, 소련군의 철수나 아프칸의 저항이 늦추어질 기미는 전혀없다.

▲북아프리카 모로코 : 리비아와 알제리가 지원하는 폴리사리오전선군과 미국이지원하는 모로코정부군간의 전투는 폴리사리오가 소련으로부터 무기공급을 받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점차 확대일로. 재정적으로 난관을 겪고있는 모로코는 서부 사하라 점령문제로 2만병력과 하루 백만달러의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다.

▲아프리카 남부의 앙골라와 나미비아 : 소련과 쿠바의 지원을 받는 앙골라외 막스주의군과 두개의 흑인 게릴라단과의 전투, 나미비아내부에서는 남서아프리카인민기구(SWAPO)와의 게릴라전도 계속되고 있다.

▲그밖에 필리핀의 모슬렘 분리주의자들과 마르크스대통령의 정부군간의 전투, 폴랜드내 주둔한 소련군간의 소요, 중·소접경에 대치한 100만 소련군, 중국·베트남간의 충돌, 3만 주한미군이 예측을 불허하는 북한군의 서울침공에 대비하고 있다.

— 제3회 스포츠·퀴즈 —

프로야구 올스타전 장소맞추기

본사의 제3회 「스포츠·퀴즈」는 금년도 북미프로 야구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이 벌어지는 장소 알아맞추기다.

해마다 7월에 개최되는 올스타전은 아메리칸리그와 내셔날리그별로 대표선수들을 선발, 단 한게임을 가진다.

양팀의 감독은 전년도 각 리그 우승팀인 아메리칸리그의 뉴욕·양키즈감독과 내셔날리그의 L.A.다저스의 감독이다.

82년도 올스타전이 열리는 도시의 이름을 알아 맞추는 분 2명을 추첨으로 선발, 1등 1명에게는 제일여행사 제공의 올스타·게임입장권 2장을 주며, 2등 1명에게는 브랜든스포츠사(대표 이건영)가 제공하는 쿠퍼스 야구글로브를 준다.

응모방법은 엽서우송(주소: 1025 Dupont St, Toronto, M6H 1Z7) 또는 전화(533-2361)이며 기간은 오는 16일(수)까지이다. 당첨자는 16일밤 8시 익스비션스타디엄에서 토론토·블리자드축구팀과의 경기에 참석하는 미국 포트랜드팀의 조영증선수가 현장에서 추첨한다. 조선수는 북미 프로축구에서 활약하는 유일한 한국계 선수이다.

한국일보사

대통령관저포위

「팔」군완전철수요구

(예루살렘)탱크를 앞세운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수도에서 대통령관저를 포위한 13일밤 모나헴·베긴 이스라엘수상은 레바논주둔 시리아및 팔레스타인 병력이 총 철수할 경우,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철수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스라엘의 철수전제조건은 미국의 특사 필립·하비브에 의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에 전달됐다.

국방상 아리엘·샤론이 직접 지휘하는 이스라엘군은 바브라의 대통령관저외곽을 포위했을뿐, 내부진격을 시도하진 않았으며, 레바논의 나르키스대통령은 긴급각의를 열었다.

수도탈환 목전에

영국, 5km까지 육박

(런던)영국군은 박격포와 알젠틴군포로를 방위막으로 내세우며, 포클랜드 완전탈환을 위한 최후의 일격을 가하고 있다.

14일 존·노트국방상은 "수도 포트·스탠리의 5Km거리에 육박했다"고 발표했다.

F·4D 팬텀기 판매

미, 한국군 강화위해

(워싱턴11일=연합)미국정부는 한국공군의 저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F-4D팬텀제트 전투기 6대를 한국에 판매할 계획이다.

11일 국방성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새로 판매될 F-4D는 지난 7년간 자연마멸로 수명이 다 된 F-4 한공기를 대치할 것으로 총 액수는 미화 $1,680만 이다.

새 제트기의 인도시기는 빨라야 금년말경으로 보인다.

경제특집 지상 FORUM ②

불황 진단과 대책

불황은 결코 장사하는 사람들의 문제만은 아니다. 취직생활을 하던 교민들중 많은 사람들이 5~10년씩 일하던 직장에서 레이·오프(임시해고)되어 당사자들을 놀라게 했다. 토론토 교민들이 많이 일하던 「AP파트」회사의 J씨는 지난5월 11년 근무중 처음으로 레이·오프되어, 구직전선에 뛰어들었다.

5월의 실업율은 전호에서 언급한 4월의 실업율 9.6%보다 더욱 올라, 10.2%선에 이르렀다.

5월 실업율이 악화된 원인중의 하나는 4월말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여름방학학생들이다.

실업율은 늘어도 임금은 올라

교민실업자늘어 구인광고불티

학생들은 매년 맥주회사, 자동차회사, 유리공장등 대회사에 일찍 일자리를 구해, 여름휴가를 가지려면 소매상 상점주들은 헬퍼구하기도 힘들었으나, 금년에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났다.

헬퍼자리는 여름방학 일자리를 못 구한 친척들에게 돌아간다. 때문에 구인광고를 내기가 무섭게 전화통에 불이 난다. 일부 광고주들은 일단 광고후 문의전화가 너무 많이 오기때문에 아예 주소만 내고, 「직접내방 바람」이라고 광고한다.

여름에 한창인 지렁이잡이도 한산해졌다. 지렁이를 잡으려는 피커(Picker)들의 절대수가 늘어나 광고의 필요성이 적어졌다. 또 많은 피커들이 지렁이를 많이 잡게되어, 지렁이 값은 점점 떨어졌다. 작년 한때에는 1천마리당 27~28달러였으나, 현재는 20달러도 못된다.

또 하나의 기현상은 구직광고의 출현이다. 한인사회의 경우 구직광고는 찾아볼 수 없었으나, 이제는 직장을 구하는 광고가 신문에 나오고, 직업소개소도 생겼다. 많은 교민실업자들은 식품점에서 다음날짜 신문이 도착되기를 기다렸다가,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통에 매달리는 실정이다.

인플레이션하의 불경기를 당하면 정부는 임금통제 정책을 써 물가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제정책이나, 현재 트루도 정부는 이것도 시행 못한다. 강력한 노조 때문이다.

임금인상을 6%이내에서 묶으라는 중앙은행총재의 요구에 대해 노조는 인플레이션율을 카바 못하는 임금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고,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라고 강력히 주장한다.

본사조사에 의하면 버라이어티·스토어 헬퍼의 임금은, 현재 약 시간당 $3.50~$5.00사이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이들의 절대임금은 작년의 $3.00~$4.50에 비해 약간 올랐다. 그러나 앞서 얘기한대로 실업자수가 늘어, 그 양상은 다르다. 예년의경우 돈이 많이 들어도 책임감있고, 무거운 뒷일을 할 수 있고, 또 경험있는 헬퍼가 인기가 있었으나, 금년에는 가게사정도 여의치 않고,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학생들은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학생들은 작년의 $3.00~$3.50에서 금년에는 $3.50~$4.00으로 임금이 인상됐으나, 학생헬퍼의 절대수가 늘어나, 가게 경영주들의 실질임금지급율은 작년과 비슷하다. 또한 예년에는 학생들이 돈좀모이면 "여행간다"또는 "다른 좋은 직장을 구했다"면서 자리를 자주 옮겨 학생들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으나, 이제는 학생들도 그나마의 헬퍼자리를 구하기 힘드는 실정이다.

어쨌든 불경기를 당하는 것은 캐나디안만도, 또는 한국교포만도 아니다. 고용주이던 고용인을 불문한다.

불황은 세계모든 사람들의 문제이다. 한동안 오일달러로 흥청대던 아랍석유국들도 세계각국의 오일소비절약으로 생산이 과잉, 기름값이 떨어지고 있다. 전쟁만 났다하면, 치솟던 금등 후기재들도 포클랜드다, 중동전이다해도 값이 꼼짝도 안한다.

〈유승민 부장〉

[차회 이수신 캐나다 한국외환은행 전무가 금융면에서 본 불황의 진단과 처방편]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7-3171 ~ 537-3174
484 BLOOR ST.W.
(Bloor & Bathurst)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Merrill Lynch Royal Seurities Ltd.
금·은·증권·Bonds·RRSP에 대한 투자는
361-3428(B), 447-1374(R) : 강상욱
증권은 경기변동에 따라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데 경기회복 6개월 전부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많은 투자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일, 이십년만에 한번 올수있는 절호의 기회가 증권투자에 오고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근거는 무엇인가?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특별보너스 20%
노출의계절!
내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선택하려면 먼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피부미용 ●화장법 ●화장품
선택요령에 대한 상담은 항상 친절히 응해드립니다.
화장품

30% OFF

●니나리치 ●마비스
●로댕스독 ●포라벨
●크리스찬디올 ●프레이보이등
선글라스

30%~50% OFF
OMEGA

이태리제 금목거리·팔지(14K·18K)
보석·시계

여름철 특별할인 다량입하
건강한 생활!
교포및 여행자를 위한 녹용및 보약재 직수입
●십전대보탕 ●녹용
●웅담(캐나다산)진품
●우황청심환 ●신경통약
●사향·해구신 ●각종종합비타민등
한약부

여러분의 단골 백화점
미도파로 오세요.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TORONTO (B) 536-1692 (R) 245-3539

East Asian Library
Rm 3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김용순 무용발표회 1,200명 모여

의상·소도구좋았으나 진행서툴러

흰 한복에 지팡이를 짚고서 등장한 김용순씨가 맺힌 한을 터뜨리듯 짚신과 머릿수건을 집어 던지는 장면은「김용순무용발표회」의 클라이막스였다.

12일밤 라이어슨대학극장 에서 열린 발표회에는 많은 어린이들을 포함한 관객 1,200명이 약2시간 반동안 화관무·부채춤등 한국고전무용 12작품과 김용순씨의 발레「빛의 자녀」, 댄서사이즈「음악에 맞추어」등을 구경했다.

무대배경은 주로 슬라이드를 이용, 불국사·농악광경등 한국의 풍경을 조명으로 큰 스크린에 담았고, 음악은 미리 녹음된 것이었다.

무대의 막이 오르자, 김용순씨의 발레 독무「빛의 자녀」가 팝송 "YOU LIGHT UP MY LIFE"를 배경으로 펼쳐졌다. 이어, 김지현등 문하생들이 춘 화관무·부채춤·승무·3고무·꼭두각시춤·처녀총각·소고무와, 김용순·김정숙씨가 단원들과 함께 춘 현대무용 "Fame"으로 1부는 끝났다.

군데군데 진행상 문제로 막이 올렸다 다시내리고 프로와 프로사이의 휴식이 길어지면 관중들은 박수로 격려했다.

2부는 배미애씨의 춘앵무로 시작, 화랑무·산조·선녀무·한오백년·탈춤·음악에 맞추어·팔도민요가 펼쳐졌다. 탈춤에서는 앞뒤로 다른 탈과 옷차림이 관객들의 폭소를 자아냈다.

무대인사차 등장한 김씨는 스페인노래 "마냐니따"로 인삿말을 대신 한뒤, '나의살던 고향"을 선창, 2절까지 관객들과 합창했다.

관객 K씨는 "좋은 의상과 소도구에 비해 무대장치·배경이 단조로운 점, 진행이 원활치 못해 어린이 관객들의 소요가 있었던 점, 출연진의 수준이 고르지 못한 점이 아쉬웠지만, 지난 1·2회때에 비해 많이 발전했다"고 말했다.

전원이 여자인 이날 발표회의 출연진은 총 35명, 무대장치는 장기철씨가 맡았다.

◆김용순 독무의 〈한 5백년〉 〈촬영: 김영석기자〉

◆선녀무를 추고 있는 김용순 무용단. 〈김영석기자 촬영〉

UBC에 한국학 강좌
한국정부가 전액부담

(뱅쿠버지사)뱅쿠버의 브리티시·콜럼비아대학은 오는 9월 학기부터 한국정부의 재정부담으로 한국학 강좌를 시작한다.

뱅쿠버총영사관(총영사 강대완)은 지난 80년가을 학교(UBC)당국과의 논의끝에 한국정부의 전액재정부담 조건으로, 동 대학 동양학과내에 한국학을 설치키로 합의, 한양대 역사학 조교수 방용필교수가 초빙교수로 강의를 맡게됐다고 전했다.

한국학 강좌설치는 1년 계획으로, 학생들의 흥미와 수강자 등록상황에 따라 계속실시 여부가 결정된다.

캐나다대학이 한국정부가 재정부담한 강좌를 설치하기로는 토론토대학에 이어, UBC가 두번째이다.

여성과 국가 세미나

(서울12일=연합)6개 아시아국가의 여성국회의원 12명과 한국여성의원 9명이 오는 22일부터 2일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여성과 국가발전"에 관한 세미나를 갖는다.

한국이 주최한 아시아 여성의원들의 첫 회합인 이번 회의의 의장 김현자 국회의원은 "이 회합은 아시아각국의 여성들의 경험담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여성의 역할을 북돋기 위한것"이라고 말했다.

참가국들은 인도네시아, 말레지아, 일본, 필리핀, 대만, 타일랜드, 한국의 7개국이다.

한국·캐나다 관계의 교량이 되는 신문.
—토론토·한국일보—

합성수지제품전시회
US$ 190만 어치 수출 계약

(몬트리얼=정관성지국장)몬트리얼무역관(관장 정명규)은 지난 5월28일부터 31일까지 합성수지제품 전시회를 몬트리얼무역관에서 열었다.

김재형(합성수지수출조합 전무이사)씨를 단장으로 한 민간무역사절단 7명은 26일 이곳에 도착, 27일 하오6~8시 Hyatt Regency Hotel Regency C—Room에서 리셉션을 가졌다. 시멘트·백, Glove, 가방, 낚시대등을 전시한 이 리셉션에는, 80여명의 캐나다 합성수지제품 수입업자들이 참석, 캐나다 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상담에 의해 총 $1,920,000(US$)의 계약및 추진실적을 올렸다.

이 사절단에는 상공부사무관 성기혁조정관이 합석했다.

이날의 인기품목은 시멘트·백, 개비지·백, 선물용 비닐백등이였으며, 여행용가방, 스키, 골프용 장갑, PVC Leather등도 많은 계약을 보였다.

이 사절단은 6월2일 이곳을 떠나, 디트로이트에서 전시회를 열고, 뉴올리안스를 거쳐 뱅쿠버에서도 전시회를 가진후, 한국으로 돌아간다.

◆상품전시회 리셉션에서 상담하는 광경.

부동산매매시 법률적 제반문제

경제생활과 우리 4

Ⅲ법률상담편 ‖ 강찬영변호사 제공

인지붙여야 계약성립
부부동업체도 서명중요

다) 전량매매계약서

1. 당사자(Parties)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대개 네가지의 형태를 띈다고 할 수 있다. 개인, 동업체, 주식회사 그리고 위임인(trustee)바로 그 네가지 형태이다.

1)개인

개인과 개인끼리 상대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난에 각자 서명을 함으로써 계약이 이루어진다.

간혹 서명하는난 옆에 빨간인지(Seal)를 붙이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러한 인지는 당사자들이 서로가 대가를 주고 받았다는 것을 상징한다.

보통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가게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인지가 없다고해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간혹 친한 가족끼리 정당한 가격의 지불없이 인수할 때는 반드시 인지를 붙여야만 계약이 성립된다. 캐나다 계약법상 당사자들이 서로 대가를 주고받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는데, 인지를 붙이는 것은 이러한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2)주식회사(Incorpo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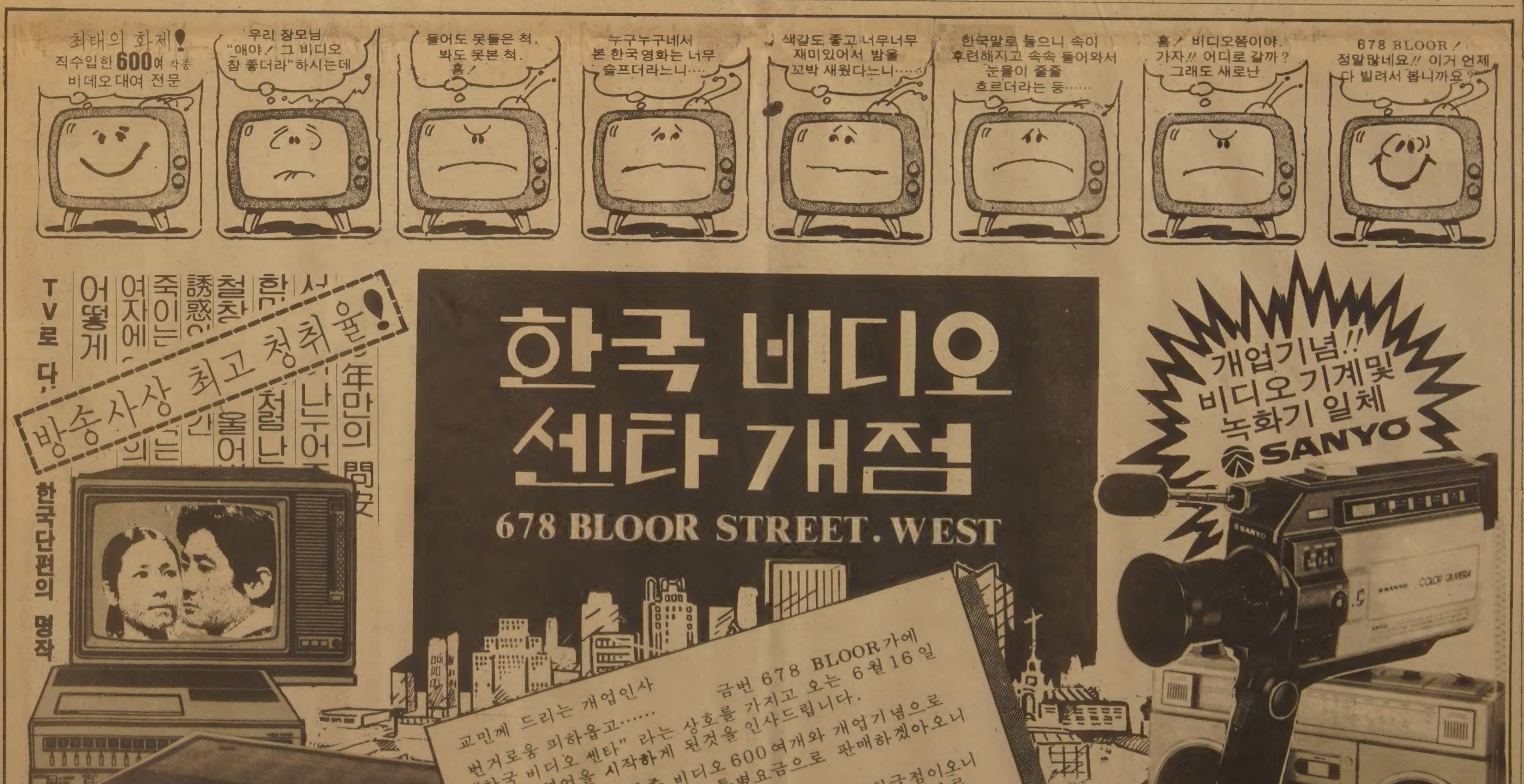
주식회사는 법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주주나, 이사와는 분리된 법적존재이다. 개인과 같은 존재와는 다른 추상적인 존재이므로 언제나 회사의 임원을 통해서만 행동을 취할수 있는것이 특징이다.

주식회사가 당사자 중 하나인 경우 반드시 회사인지(Corporate Seal)를 회사임원의 서명앞에 찍어야만 법적효과가 있게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 하겠다.

3)동업체(Partnership)

교포사회내에는 아직까지 주식회사는 별로 많지않고 대개가 부부로 구성된 동업체이다.

동업체가 당사자인 경우, 모든 동업자들이 계약서에 모두 서명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나, 동업체가 종사하는 사업이 가게를 매매하는 사업이 아닌 이상, 모든 동업자들이 서명을 해야만 유효한 계약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법적으로 동업체의 중요자산을 사고 파는 경우 모든 동업자들이 서명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만일 동업체가 하는 사업이 가게매매라면, 동업체의 어느 한 동업자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더라도 유효한 계약서가 되지만 동업체의 사업이 가게매매가 아닌이상 모든 동업자들이 서명을 해야만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다.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菊島의 사나이 <6>

金聖鍾작

어떤 情事 ⑥

사내가 그녀들곁을 지나쳐갔다.

「어때, 우람하지?」

명자는 킥킥거리며 문자의 허벅지를 꼬집었다. 문자는 계속 말했다. 그래야 직성이 풀린다는듯.

「다른 남자들보다 유난히 커보여. 안 그래?」

「너 오늘밤 잠 못자겠구나.」

「도대체 저 흉은 여자가 뭐가 좋다고 함께있는거지? 아, 분해.」

「운동선수인가 봐. 몸이 온통근육질이야.」

그 사내가 튜브를 하나들고 그녀들곁을 다시 지나갔다.

중년 여인이 파라솔 밑에서 나왔다. 사내가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들은 바다로 들어갔다. 그것을 바라보다 말고 문자는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다.

선글라스는 중년 여인을 데리고 멀리까지 나아갔다.

"너 그러다간 오늘밤 잠못자겠구나"

「미스타 킴, 안돼.」

여인이 튜브 위에서 발을 동동 굴렀지만 그는 웃으면서 그대로 밀고 나갔다.

「무서워. 그만가요.」

「무섭기는…」

인파를 멀리 벗어난 곳에 이르러서야 선글라스는 미는것을 그만두었다.

「미스타 킴, 나 빠지면 자기끌어안을 테야. 혼자 도망가면 안돼.」

여인의 어조속에는 무식함이 담겨있었다. 선글라스는 혀로 그녀의 허벅지를 핥았다. 혀가 점점 안쪽으로 들어가자 여인은 몸을 뒤틀었다.

「아 그러지마. 미치겠어.」

감고있는 눈의 속눈썹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튜브밑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다리 사이를 쓰다듬기 시작했다. 여인은 고개를 뒤로 젖힌채 신음했다. 그만두라는말은 더이상 나오지 않았다. 그 대신 그녀는

「좀더…좀더…좀더…」

하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선글라스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있었다. 손은 부지런히 여인을 애무하고있었지만 생각은 딴데가 있었다. 여인을 내려다보는 그의 얼굴에 잠깐 냉소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여인이 참을 수 없다는듯 그의 팔을 움켜쥐고 몸을 떨었다. 얼마후 그녀는 손을 놓으면서 눈을 떴다. 그리고 얼빠진듯한 눈으로 남자를 쳐다보았다.

「미스타 킴…」

그녀가 맥없는 목소리로 남자를 불렀다. 그는 웃으며 여인을 바라보았다. 웃고 있었지만 웃는것 같지 않은 웃음이었다.

「미스타킴…그안경좀 벗어봐.」

그러나 그는 선글라스를 벗으려고하지 않았다. 그저 웃고만 있었다.

「미스타 킴…나, 자기 없이는 못살 것 같아.」

「나두요.」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그가 대답했다. 어둠거리는듯한 서툰발음이 이상하게도 매력적으로 들렸다.

「미스타 킴, 나 자기 사랑해. 미스타킴은 나 사랑하지 않아?」

「사랑합니다.」

그의 말은 간단명료했다. 결코 길게 말을 늘어놓는 법이 없었고, 묻는 말에만 대답했다.

朴 男 그림

最古人遺骨확인

350~400만년전으로 추정

(버클리)지금껏 알려진 원시인류중 가장 오래된 선조의 뼈가 조사, 확인되었다고 UC버클리의 인류학자들이 발표했다.

UC버클리의 데스먼드·클락과 팀·화이트등의 학자들은 지난해 북부이디오피아의 「미들어워쉬리버밸리」에서 이들 두개골및 대퇴골의 파편이 발견되었다고 말했다.

연구결과 신장 4피트에 두발로 걸으며, 대퇴의 크기는 현대의 침팬지에 가까운 이 원시인류는 3백50만내지 4백만년전에 생존했던 것으로 밝혀져 가장 오랜 인류의 조상으로 추정되었다.

새 인류연구에서 드러난 중요한 사실은, 직립보행과 대퇴크기가 서로 비례하기 보다 독립되어 진화해온 인류의 두가지 특징이라는 점이라고 학자들은 전했다.

인류의 선조들은 두뇌가 커지고 개발된 후에야 직립자세가 더 이롭다는 것을 깨닫고, 직립보행으로 진화단계를 옮겨갔다는 것이 지금까지 인류학자들의 통설이었다.

그러나 지난74년 아프리카에서 360만년전 인류인 「루시」를 발견해 연구한 끝에 이런 이론에 어긋나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이번에 새로 「아우스트랄로피테쿠스·아파레니스」라고 지칭된 새 유골연구로 다른 이론을 성립시키게끔 된 것이다.

「어워쉬밸리」지역내의 두 곳에서 발견된 이들 뼈는 모두 한 종족인것으로 보이며, 달리거나 뛰어오를수는 있으나, 연장을 쓸줄 모르는 머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유골연구의 또다른 새 발견은 이들 원시종족이, 이후의 인류조상과 침팬지·고릴라같은 유인원들을 낳는 한 조상이라는 가설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오래된 인류의 조상으로 추정되는 원시인 두개골의 파편, 최근 발견된 이 두개골은 약 4백만년전의 것으로 추정된다.(버클리, 캘리포니아주)

홈즈, 구니에 13회TKO승

프로권투 헤비급 챔피온 고수

버빅 재도전 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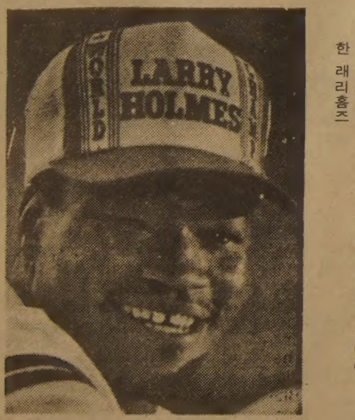
(라스베가스)무적의 세계헤비급 챔피온 래리·홈즈가 또다시 도전자 제리·쿠니를 13TKO로 눌러 타이틀(WBC)을 방어했다.

8라운드이상 뛰어본적이 없는 도전자 쿠니는 13회들어서면서도 홈즈의 얼굴에 레프트, 라이트를 날리며 대쉬, 홈즈의 눈을 붓게 했으나, 홈즈의 라이트명중 휘청했다. 같은자리에 두방을 더먹은 쿠니는 팀에 기대고 말았다. 심판이 다가 왔을때는 홈즈의 13TKO승에 선언되는 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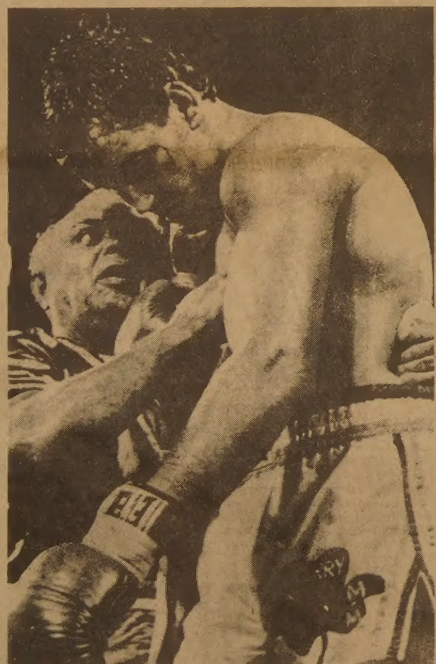
이로써 홈즈는 4년전 당시 챔피온 켄·노튼을 물리친후, 12번째 타이틀을 방어, 무적의 헤비급왕자로 서 계속 군림하게 됐다.

한편, 오픈전에서 캐나다 챔피온 트레버·버빅은(WBC 랭킹4위) 무하마드·알리 스타일에서 무패를 기록했던 그렉·페이지에 게심판전원 일치의 판정승을 거두었다.

버빅은 승리후 "홈즈와 붙을 선수는 나밖에 없다"면서 홈즈에게 재도전을 선언했다.(관계기사8면)



◆12번째 프로권투 세계헤비급 타이틀을 방어한 래리홈즈



◆얼굴에 유혈이 낭자한채 13회 TKO패를 당한 쿠니.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 1 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프로축구 블리자드를 즐기자

입장권 한국일보사 533-2361
예매처 브랜돈스포츠 598-3732

빅·세븐 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 영 철

한국전집및 고전현대소설

◉한민족의 운명과 진로를 결정지어온 역사의 주역들-한국인물사(10권)
◉모든 여성에게 멋과 알뜰살림의 지혜를 심어주는 당신의 백과-현대여성 새생활백과(8권)
◉동양의 지혜, 처세의 경략서, 영원한 감동을 주는 불멸의 고전-박종화의 삼국지(6권)
◉피로 물들인 태평양! 인류사상 최대의 전쟁로망-태평양전쟁사
◉인간문화재 제38호 성대교수 황혜성의 가정요리(2권)외 박헬레나편 가정 꽃꽂이(2권)
◉소설로 쓴 한국 근대사라고 요약할 수 있는 박경리의 "토지"(6권)
◉유주현 역사소설군 대전집
◉동아방송편 광복20년(25권)
◉숲을 보되 나무를 논하지 말자의 옛날 옛날 한 옛날(이장우 저)
◉불멸의 작 천세욱편의 수호지
◉우리 어린이들의 벗 디즈니 유치원백과(12권)및 꽃동산(10권)
◉언제나 아껴지는 장삼직편의 대 한한사전
◉양방, 한방, 민간요법의 대 가정종합병원 외 수십종목 주문, 배달가능(단, 토론토지역)

범한서적북미주총판
1712 QUEEN ST. E. TORONTO
(416)690-2216 8am-10pm 최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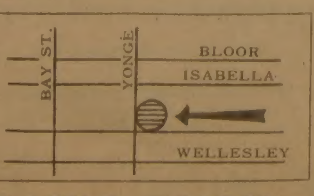
江戶前 太鼓寿司

어제 오신 분이 또 오십니다

쓰시(김밥)전문

일본음식중 김밥만 전문으로 하고 있읍니다.

밤 12시까지 OPEN하오니 일차 왕림해 주십시오.



TAIKO SUSH.
607A YONGE ST.
☎ : 921-6408

BRUNSWICK SINCE 1845

THE PERFECT GIFT
〈가족전체가 즐기는〉

$422.00

◎가정에서 남녀노소 즐길수 있는 당구게임.
◎일단 방문해주십시오.
◎모든종류의 당구대를 주문할 수 있읍니다.

HOME BILLIARD SALES
SERVICE & REPAIRS

5170 DIXIE RD. MISSI.ONT.
(딕시×401 SOUTH) ☎ 625-2691

종합보험

김 홍 랑

● 생명보험
● 자동차보험
● 주택, 상점보험
● 사업보험
● R. R. S. P.
● INCOME AVERAGING ANNUITY
● PENSION

FINANCIAL & INSURANCE CONSULTANT
961-3774(B)
277-8733(B)
624-2103(R)

IMPERIAL LIFE

The Imperial Life Assurance Company of Canada
Suite507, 586 Eglinton Av. E.
Tor. Ont. M4P 1P2

● CAPITAL GAIN, 높은 소득으로 인한 높은 세금의 조절및 경감방안
● 기업계승에 따른 문제처리
● 생활안정급고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安定탈피 成長촉진 經濟정책 바꾸기로

政府추진 올 通貨규모 3%늘려

換率、抑制없이 實勢반영

稅金공세통한 稅收증대 지양
國公債등발행 財政赤字 대체
公共투자확대 住宅경기 부양

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자극하기위해 투자촉진, 내수진작을 겨냥한 과감한 경제활성화시책을 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세를 유지, 한자리숫자에서 억제될 전망이서고 국제수지도 당초 예상보다 크게 개선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에따라 경제운용면에서 종래의 안정위주의 정책에서 탈피, 경기자극을 위한 적극적인 성장정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각료와 경제계와의 간담회가 끝나는대로 내주중반께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세미나 형식으로 경제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한후 내주말께 종합적인 경제활성화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10일 관계당국이 추진중인 경제활성화시책의 주요골자는 ①통화운용면에서는 금년도 통화안정계획에 계상된 총통화증가율을 22~23%에서 25~26%로 3%포인트늘림과아울러 통화공급 경로를 바꾸어 총통화보다도 통화공급을 늘려 통화가 실물경제의 흐름을 뒷받침하도록하고 ②재정면에서는 막대한 세수결함이 예상되지만 세금공세를 통한 세수증대를지양하고 국공채발행을 통한 적자재정을 편성해서라도 예산에계상된투융자사업을모두금년중으로 집행완료하며③환율은 금년안정목표3%에 구애받지 않고 실세를 반영,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연말까지 8~10%선에 안정시킨다④이밖에 기업투자 촉진및 재무구조개선을위한 세제개혁과 병행해서⑤주택경기활성화 고용증대를위한 도로포장사업등 공공투자확대、국산기계구입자금의 지원강화등 적극적인경기부양시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총통화증가율을 3%포인트 증액함에 따라 약 5천억원이 추가 공급된다. 정부는 추가통화 공급액은 중소기업및 농촌부문에 집중 방출하여 방출된 자금이 구매력화하여 내수산업을 진작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또 재정수지는 수입감소와 내수경기의 침체로 관세와내국세 부문에서 5~6천억의 세수결함이 예상되지만 예산개혁작업으로 삭감된 일반경비 2천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은 국공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 투융자사업을 적극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세수결함에 따른 재정적자를 보전키 위해 지방채를 발행, 증시에서 소화시킬 방침이다.

또 내수산업의 수요진작을 위해 주택경기와 중소기업및 기계공업진흥시책을 과감히 추진키로 했다.

추진중인 주요시책은 다음과같다.

▲주택경기의 활성화=①향후 1년6개월동안 신축주택취득시 양도세를 5%로인하②25·7坪이하 주택 신축을위한 택지양도시 양도소득세 1백%면제③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채권매입 면제혜택을 전용15평까지 확대。

▲기업투자촉진및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세제개혁=①法人稅率의 인하및 단일화。②기업내부유보 촉진을위한 지상배당세의 완화 ③특별소비세의 과세품목및 세율을 산업정책적견지에서 재조정。

▲국산기계구입자금지원=①융자조건을 개선、이자율인하및 융자기간 연장②금년도지원계획 (국민투자기금 1천1백억원및 산은자금 5백억원)에 구애받지않고 수요가 늘어나면 자금공급무제한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①외국의 고의적 덤핑방지책 강구②국산개발 가능품목 선정과 자금및 기술지원 확대③국민은행의 중소기업자금 1천억원 추가지원。

"教師들은 숨은愛國者"

우수한 人力육성이 將來를 좌우

全대통령、本社제정教育者大賞 수상자接見

◇ 全斗煥 대통령내외가 한국일보社제정 제1회 한국교육자大賞 수상자들을 위해 다과를 베풀며 이들을 치하, 격려하고 있다。

全斗煥 대통령은 10일 하오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 朴昌禮씨(72·女·仁川市 東明국민학교 교장) 등 한국일보사 제정 제1회 한국교육大賞 수상교원 26명과 이들의 배우자 23명등 모두 49명을 청와대로 초치, 다과를 베풀며 공로를 치하, 격려했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우리나라에는 각분야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애국자들이 많지만, 가장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2세교육을 위해 教壇에 서 있는 교사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우리나라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생존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남앞에 나타나지않고 숨어서 훌륭한 일을 하는 분들이 방방곡곡에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賦存資源이 없는 우리나라는 우수한 人力이 큰 資産이기 때문에 우수한 人力을 육성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장래가 좌우된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처우와 시설등이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속에서도 2세들의 교육을 위해 精進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고 할수있다』고 거듭 치하했다.

全대통령은『각박한 사회에서 한푼두푼모은 私財를털어 교육에 투자하고 남의 자식을 친자식이상 사랑하는등 2세들을 위해 정성을 다한다는것은 우리 사회에서 할수없는 어려운 일인데도 여러분들은 이를 극복해 훌륭한 일을 해냈다』고 치하하고 『앞으로도 많은 고생을 감수하면서 2세교육을 위해 精進해달라』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특히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모든사람이 각분야에서 한가지씩 이라도 特技와 資質을 가져야하며, 그러기위해서는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선생님들이 교육을 잘하면 청소년문제나 老人문제등도 해결될수있다』고 교사들의 책임이 막중함을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제5공화국의 國政指標의 하나가 교육혁신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재정형편이 좋지않아 교육시설과 처우개선에 많은 투자를못해 아쉽지만 연차적으로 이를위해 노력해나갈것』이라고 밝히고 『여러분들이 동료교사 또는 후배교사들에게 스승의 길과 사명감등을 일깨워주는등 노력해나가면 우리나라의 교육계가 반드시 발전해 나갈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 人口증가의 억제를 거듭 강조하면서 『여러선생님들이 人口증가 억제를위한 교육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하고 『앞으로 여러분과같은 선생님들이 많이 배출될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말했다. 약30분간진행된이날 다과회에는 李奎浩문교부장관, 張康在한국일보社회장, 權赫昇편집理事가 배석했다.

이機 PLO본부爆破

"베이루트 곧 함락"傳單

최대空中戰…시리아領 공습도

【베이루트·텔아비브10日AP聯=聯合】이스라엘공군기들은 10일 레바논침공 5일째를 맞은 레바논수도 베이루트 공의 국제공항을 폭격하고 공항과 지중해연안할데市에 수차례 착륙을 시도했으나 레바논군에 의해 격퇴된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스라엘 제트기들과 전함들은 베이루트남부에 집중포격을 가해 PLO본부들을 폭파했다고 PLO소식통들이 전했는데 이스라엘군은 이날 날이 밝으면서부터 아라파트 PLO의장의 지휘벙커와 일련의 PLO 정치 군사사무소들이 있는 베이루트남부에 포격을 개시한뒤 인근 난민촌들도 공격했다고밝혔다.

이스라엘軍은 이에앞서 9일 베이루트 남쪽 12km의 팔레스타인 게릴라거점 다무르市를 장악한데 이어 베이루트남쪽 4km의 할데 市에 입성한것으로 목격자들이 전했으며 관영 레바논방송과 SANA통신은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시리아수도 다마스커스의 교외를 폭격, 다수의사상자를 냈다고 보도했다.

목격자들과 레바논의 관영보도기관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스라엘 전투기들은 이날하오4시께 (한국시간하오11시) 다마스커스교외, 특히 다마스커스에서 서쪽으로 5km떨어진 두마르의 주택지역을 폭격, 8명의 사망자와 47명의 부상자를 내고 다수의 가옥과 차량을 파괴했다.

이스라엘군은 이어 하오 6시께 지중해 연안도로를따라 탱크를 앞세우고 할데시에입성하여 즉각 통신시설등 주요건물을 점령, 포진했다.

이스라엘기의 시리아 영내 공습은 이스라엘이 지난6일 레바논을 침공한 이래, 그리고 지난73년의 아랍―이스라엘전이후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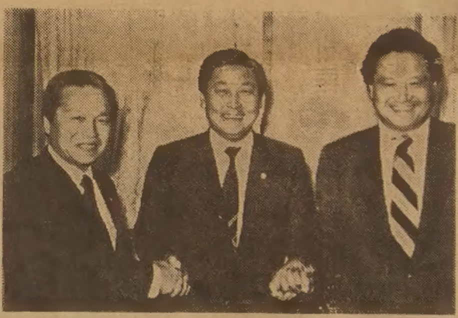
【베이루트10日AP聯=聯】이스라엘기들은 10일 『이스라엘군이 곧 베이루트를 함락할것』이라는 전단을 베이루트상공에 뿌리고 시리아군은 수시간내 베이루트를 떠나라고 경고했다.

아랍 글자로 쓰인 이 전단들은 이스라엘 제트기와 전함들이 아라파트PLO의장의 지휘본부가 있는 베이루트남부를 폭격한후 곧이어 뿌려졌다.

빠르면 週末께 領袖회담

3黨대표 靑瓦臺초치

民韓、參席범위 구애않기로



◇3黨총장의 웃음 民韓黨의 單獨領袖회담주장으로 며칠간진통을겪었던民正·民韓·국민등 3黨총장들은 10일하오 회담에서「靑瓦臺3黨代表회담」에 合意한뒤 오랜만에(?) 손들맞잡고 웃으며포즈를취했다。左로부터 申喆均국민, 權翊鉉民正, 柳漢烈民韓黨사무총장。

民正·民韓·국민등 3黨은 10일하오 국회에서 사무총장회담을 갖고 빠른시일내에 靑瓦臺에서 3黨대표회담을열어 李喆熙·張玲子부부사건에 따른 時局수습방안과 정치 경제등 현안문제를 협의하기로했다。

이에따라 3黨대표회담은빠르면 週末이나내주초 全斗煥대통령이 李載灐 民正黨대표위원 柳致松民韓 金鍾哲국민당총재를 靑瓦臺로 招致 3黨대표가 대통령과 面談하는 형식으로 이뤄질것으로 보인다。

民正黨의 李대표와 權총장은 11일하오 靑瓦臺로 全斗煥대통령을 방문, 3黨代表의 면담신청을 전하고 구체적인 회담일자등을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3黨은 11일 각각 黨職者회의와 黨務會議등을 열고 靑瓦臺 3黨대표회담에서 제시할 時局수습방안등 회담대책을 협의 마련한다。

權翊鉉民正, 柳漢烈民韓, 申喆均국민등 3黨사무총장은 10일하오 회담을 갖고 3黨대표가 全斗煥 대통령과 회담을갖도록 民正黨측이 주선하고 이회담은 청와대일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열리도록 한다는데 합의를했다。

權총장은 회담이 끝난뒤 이같이 발표하면서 『청와대 3黨대표회담의 議題는 최근의 거액어음사취사건과 관련된 수습책을 중점 논의하고 기타時局전반에 관한 현안문제도논의토록하며또청와대3黨대표회담의결과발표는3黨이 공동으로하기로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3黨 代表회담은 11일로 잠정적인 日程이 잡혔으나 그동안 총장회담이 지연되었고 이날 회담에서 柳漢烈 民韓黨사무총장이 『준비결 柳총재의 일정때문에 11일을피하고 시간을 줄것』을 요구했고, 民正, 국민당 사무총장도『오늘 합의를 본뒤 다음날 회담개최는 일정상어렵다』고 난색을 표명, 11일은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담日字에 대해 權民正총장은『청와대일정의 허용범위안에서 최대한 빠른시일』을 강조했다。柳民韓, 申국민당총장은『사정상 금주가 適時인것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柳총장으로부터 회담결과를 보고받은 柳致松民韓총재는『靑瓦臺 회담에서는 張여인사건의 규명과그리고 責任문제는 물론 금융문제를 포함한 時局문제 전반을 짚고 넘어갈 생각』이라고 말했고 金鍾哲국민당총재는『張여인사건의 수습책과함께특히 경기활성화문제를 거론하겠다』고 밝혔다。

金珍培대변인은 회의가 끝난뒤『확대간부회의는 領袖회담의 참석범위와 의제에 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難局수습을위한 우리당의 주장과 의견이 충분히 토의될수있도록 보장되는한 領袖회담의참석범위에는 구애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모부투大統領離韓

"經濟 團體長 자이레 招請"

모부투 자이레 대통령일행은 3泊4일간의 공식日程을 마치고 10일상오10시15분 특별기편으로 離韓했다.

모부투 대통령내외는離韓에 앞서청와대로 全斗煥 대통령내외를 예방, 告別인사를 나누고 헬리콥터편으로 金浦공항에 도착, 劉彰順국무총리와 李範錫외무부장관, 파완즈페 駐韓외교사절 단장등의 환송을 받았다.

모부투 대통령은 離韓에앞서가진 기자회견에서 滯韓중 『頂上회담과 관계장관들간의 회담을 통해 자이레의경제、사회개발을위한 양국간 민간주도하의 협력확대문제를 협의했다』고 밝히고 『이를위해 한국의 經濟團體長들이 자이레를 방문토록 초청했으며 이들이자이레에와 구체적인방안을 협의케 될것』이라고말했다.

그는 또『자이레는 과거부터 국제회의등에서 한국의통일방안을 지지해왔으며 자이레의 한국에대한 지지역할을 여러차례 강조했다』고 밝히고 변함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모부투 대통령은 南北韓간의 문제에 대해『자이레정부와 국민은 한국과 北韓이 각각 독자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을 인정한다』고 그입장을 밝혔다。

社會漫評

또다시 새걸로…

地平線

어떤 사장님이 스위스의 시계本舖를 찾아갔더라고 한다。동남아 출장길에 샀던 스위스 손목시계가 고장이 나서, 기왕이면 싫어, 본포에 수리를 맡겼다는 이야기。그러나 시계를 받아든 직원은 별로 자세히 살피지도 않고 물더라고 한다。―홍콩에서 사셨읍니까。가짜에 속고、무안을 당하고―한 꼴이다。▼상식적으로 「시계라면 스위스」라고 하지만、지금의 세계 시장은「3級」「3分」의 형세라고 한다。첫째의「3級」은 스위스의 고급시계、일본의 중급시계、홍콩의 저급시계를 말한다。「3分」은 전세계 3억개중、일본이 20。2%로 앞서고、다음이 스위스의17。9%、홍콩의 14。4%를 나눠가진 형세를 이름이다。일본이 선수친 電子시계、홍콩에서 용성한 가짜 스위스시계의 위력앞에、정작의 스위스시계는「빛을 잃고 있는것이다。▼이제 스위스시계의 명성은 고급시계에만 남아 있다。그가운데서도 호가 난 것은 한해 7백개를생산한다는 피아제。시계라기보다는 보석세공품이라고 할 이 시계는 똑 같은 디자인이 없다는 것으로 유명하고、지금까지 가장 값비싸게 팔린 제품은 10여년전 선박왕 알리·오나시스가 재클린에게 선물한 22만5천달러짜리를 꼽는다。지금 환율로 환산하면 약1억6천만원。▼우리나라에도「장롱속에 몇천만원짜리 피아제를 가진「마님」이 있다는 소문、정식으로 수입된 물건이 없다는등 말이 없지않지만、아닐테니、섣불리 내놓고 자랑 할수는 없다。몇해전 이른바 「舊시대에는 어느 국회의원「사모님」이 가날픈 팔목에 국민주택 한채값의 피아제를 차고 다닌다고 신문에까지 오르내렸으나、끝내 匿名가십으로 그쳤다。이처럼、너무 비싼 피아제보다는 롤렉스나 오메가가 스테이터스·심벌로는 더 마춤이다。▼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도 롤렉스、오메가가 넘친다。시계의 국내시장 규모 1천억원중 4백억원을 밀수시계가 차지한다는 업계의 추계는 과히 빗나간 것이 아닐것 같다。그러나 우리나라 善男善女를 위해서、또 스위스의 시계工들을 위해서、불행한 것은 동남아에서 사오는 롤렉스、오메가의 90%가 가짜라는 사실이다。이 지역에 상주하는 스위스의 특별주재원도 이 가짜물결은 막지 못한다。▼숱하게 밀수되는 가짜스위스시계의 物量을 생각하면、그가짜를 再生하여「가짜의 가짜」를 量産해왔다는 일당(10일字 한국일보10面)은 外貨節約이란 면에서는 죄가 덜하다고 해야할지도 모르겠으나、→이제는 다시 한번 물어야할 때다。『당신 시계는 어떻습니까?』고급 좋아 하는 허풍에는、돈도들고 신경도 쓰이게 마련이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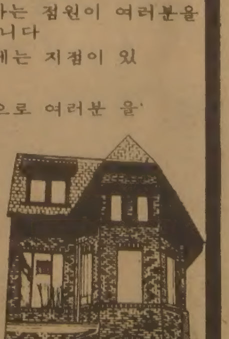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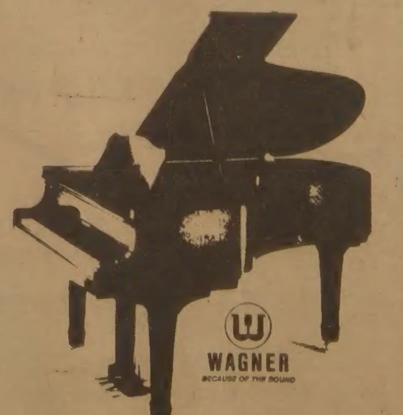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털코-트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외 각종 털제푸 3000점 이상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한국말을 하는 점원이 여러분을 도와 드립니다
※스피다이나 208번지에는 지점이 있읍니다
※언제나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신품 $150부터
중고 $99부터
※보험 세타 스토레이지 (및 보관) 수리 추레이드인(TRADE-INS)
※밍크외 각종 털코-트 자켓 모자 칼라 스톨 남성모피
영업시간
12:00~5:00 일요일
9:00~6:00 월, 화, 수, 토
9:00~9:00 목, 금



MRS. 전
202+208 SPADINA AVE.
☎: 363-60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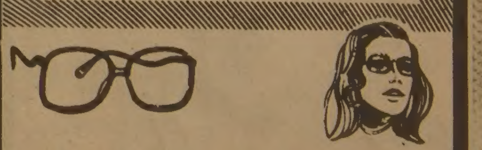
Everybody's talking about WAGNER..
BECAUSE OF THE SOUND THE QUALITY AND THE VALUE



WAGNER PIANO는
* 품질의 높음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구라파와 미국은 물론 카나다에서 수많은 음악전문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 카나다의 최우수 대학인 몬트리올의 McGill University 음악대학, University of Alberta 음악대학, Humber College 음악과 등에는 이미 Wagner Piano를 다량 애용중이며,
* 상당수의 U of T음악교수들, 카나디안음악인들, 토론토한인음악인들이 Wagner Piano를 소유하고 있읍니다.
* Wagner Grand Piano는 카나다 전체 Grand Piano 판매량의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일로에 있읍니다.
* Wagner Piano는 12년간 본사에서 품질을 보증합니다.
* Clear and Precise Sound, Uncompromised Quality and Unbelievable Price는 Wagner의 자랑입니다.

WAGNER HOUSE OF MUSIC
JASTOM TRADING COMPANY LIMITED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ARIO M3B 1Z3
☎ (B) 445-1516, 449-8644 (H) 286-1548 대표 박성희

블루어안경



● Zeiss(Marwite) ● Rodenstock
● Christian Dior ● Nina Ricci
● Menrad ● 안경제조, 수리, 복사처방
● 안과의사알선(No Appointment)
● 정부 보조 안경지정영업소
●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 합니다.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영업시간 : 월~목·9:30AM~7AM
금·9:30AM~8PM
토·9:30AM~6PM

635 BLOOR ST. W
531-2236 (B) 886-0722(R)

레바논 유린5일…이스라엘의 속셈

「눈의 가시」시리아軍철수가 목표

베이루트 占領 가능성
親「이」政府수립 工作도

5일째 레바논을 유린하고있는 이스라엘군은 수도 베이루트까지도 넘보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을 국경 북쪽40㎞ 즉 장거리포사정권밖으로 몰아낸다는 소위「갈릴리평화작전」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고있다.

이스라엘은 지난78년 침공때와는 달리 팔레스타인 게릴라의「완벽한 제지」뿐 아니라 레바논주둔 시리아군의 철수, 레바논내의 친이스라엘정부수립까지 노리는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목표를 노리고 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야심적 전략은 공식적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침공개시와 동시에 이스라엘정가에 널리 표면화된 구상이다.

이구상이 실천에 옮겨지고 있다. 이스라엘군이 당초 공인한 40㎞제한공격선을 훨씬 넘어 베이루트까지 쳐들어갔고 시리아군미사일기지인 베카계곡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한 것이다.

이스라엘군이 유리한 전세를 이끌고 있다해도 빗발치는 세계여론을 무릅쓰고 확전으로 치닫기는 곤란하다. 또 현재 분열상을 보이는 아랍회교국가들을 자극, 단결을 촉발해 집단적인 대응책이 마련될 염려도 있는것이다.

이스라엘집권 리쿠드黨의 유력정치인이자 현 베긴수상의 사위인 로니·밀로의원은『점령영토로부터의 군철수는 레바논주둔 시리아군의 철수와 모든 외국세력으로부터의 레바논해방이 병행해서 이뤄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피력, 이번작전의 목적이 시리아군의 철수에있음을 시사했다.

지난76년 레바논내전의 진압을위해 레바논에 주둔한 시리아군은 당초 2만명에서 3만명으로 크게 보강되고 베카계곡에 샘6지대공미사일포대를 설치, 이스라엘에게는「눈의 가시」였다.

이번 레바논침공작전의 주역은 국방상샤론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하기전 샤론은 레바논에 잠입, 우익기독민병대 팔랑헤지도자들과 회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샤론은 레바논내의 친이스라엘세력을 동원, 레바논에서의 친이스라엘정부 수립을 공작했다는것.

◇M16을멘 한 이스라엘병사가 레바논내의 보포르城위에서 경비를 서고 있다. 이 城은 中世十字軍의 城이었던것으로 그간 南部레바논의 PLO게릴라의 주요 거점이었으나 지난7일 이스라엘軍이 점령했다. 【보포르城 (이스라엘 점령 레바논) 9日AP電送=聯合】

베긴수상은 지난7일 이스라엘군이 배병전쟁에 점령한 팔레스타인거점인 보포르성으로 급히 날아가 우익「자유레바논」지도자인 퇴역소령 하다드를 껴안았다.

그리고『이제 보포르성은 당신것이요』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지난5년간 자금과 무기를지원, 우익하다드민병대를도와 레바논국경10㎞지역에「자유레바논」을 건설했는데 이제 그땅을 넓혀준것이다.

오는8월이면 레바논은 대통령선거를 치른다.

이스라엘은 점령영토 통치권을 기독민병대에게 넘겨줘 레바논에서 친이스라엘세력을 강화하는 한편 레바논다수세력인 온건파 회교도와 기독교도들을 자극, 시리아군주둔에 반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스라엘군은 베이루트도 점령해 2만5천명에 달하는 팔랑헤기독민병대에게 넘겨줄 가능성이 높다.

아랍圈단결 겁내 擴戰보다 長期주둔 택할듯

이스라엘은 이와함께 요르단·시리아등지에 거주하는 온건파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앞세워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등 강경노선주의자들로하여금무기를 버리고 이스라엘이계획하는 자치협상에 응하도록 압력을가하는 효과도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이스라엘의 전략은 정부측에서 공식인정하기를 망설이고 있다.

國際焦點

레바논전쟁은 너무나 많은 변수를 포함하고 있기때문이다.

현재 페르시아灣과 포클랜드군도에서 타오르는 전쟁불길때문에 미·소등 강대국의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다.

이란은 파병을 이미 선언했고 PLO는 소련에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군사행동으로 팔레스타인게릴라들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나라는 이란외에는없으나 예전과는 달리 아랍제국의단결의 소리가 보다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

主役은 샤론…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디까지 끌고갈 것인지 변수는 많지만 확전보다는 시리아군 철수를 노린 장기주둔이 확실한것 같다. 【崔海雲기자】

東쪽을 보라
아세안 2억6천만人의 새鼓動

「한국의奇蹟」을 開發발판으로

말레이지아

주석·고무등 天惠의 資源
머지않아 "세계強國"浮上

쿠알라룸푸르 상공을 한바퀴선회하면서 날아올라 북으로 기수를돌린말레이지아항공(MAS) 850機는 구름한점없이 쾌청한 허공을 경쾌하게 가로지른다. 시야가 탁트이며 바다와육지가 한눈에들어온다. 대기가 투명한 유리처럼 맑아 밀림풍경이 손에 잡힐듯 가깝게 느껴진다. 창밖을 통해 내려다보이는풍경은 온통 푸르름 뿐이다. 눈에보이는것은 파란하늘과푸른바다, 거대한 녹색융단을 깔아놓은것같은 밀림과눈부시도록 하얗게 내려쏟아지는 햇살뿐이다. 쿠알라룸푸르에서 페낭까지 비행기로 한시간남짓 날아가는동안 한점의 맨땅도 볼수없었다. 가도 가도 끝이없는 푸른숲과 사이사이로 뱀처럼 꾸불꾸불 흘러가는강물 그리고 군데군데 네모 반듯하게 개간해놓은엷은녹색의 경작지뿐이다. 마을도 별로없다.

페낭에서 북서쪽으로 한참 더 올라간오지에 現代建設이 소양댐 2배규모의 거대한 댐공사를 벌이고있는 트링가누가있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혼자 숲길을 다니지 못한다. 야생 원숭이들이 돌멩이처럼 딱딱한 야자열매를 따서 던지기때문이다. 이곳 원숭이들은 사람을 우습게 알고 놀리기도 하며 때로는 공격을 한다. 이곳주민들은 커다란 오랑우탄이 혼자 숲길을가던 처녀를 겁탈했다는 믿지 못할 얘기를 실제 있었던 일로 믿고 있다. 그래서숲길을 갈때는 사람들이 떼지어 간다.

말레이지아에서는 산에 길이생기지않는다. 풀이 쉴새 없이 자라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밟고 다녀도 길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늘 더운데다가 비가 쉴새 없이와 풀과 나무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자라고 빨리 큰다고 한다.

빗방울이 어찌나 굵은지 한창 쏟아지는 비를 그냥맞고 서있다가는 얼굴과 팔뚝같은 곳이 금방 부어오르며 아파서 맞고 서있지도 못한다고 이곳사람들은 말하고 있다. 쿠알라룸푸르나 페낭같은 도회지에 군데군데 피막(비 피하는곳)이 있는것도 굵은 빗방울의 폭우가 느닷없이 자주 쏟아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두통한 밀림으로 뒤덮인 말레이지아의 땅넓이는33만1천평방킬로—남한의 4배에 가깝다. 이 드넓은 밀림속에 매장량은 세계제1위의 주석(60만톤) 세계1위의 천연고무, 세계1위의 팜油, 석유(25억배럴) 천연가스(40兆입방피트) 원목등 풍부한 자원이 묻혀있다.

풍부한 밀림과 자원을 소유하고있는 주인은 1천3백만명—우리나라인구의 3분의1정도밖에 안되는사람들이 4배나되는 넓은 땅과 푸짐한자원을 갖고있다.

76년부터 80년까지말레이지아의 물가는 매년 2.6%에서 6.7%사이로 안정됐다. 경제성장율은 7.6%에서11.1%사이. 1인당 GNP는 1천6백96달러(80년)로 우리나라보다 높다.

고온다습한 열대성해양기후에다 말레이인 45%, 중국인 35%, 인도인 11%등으로 돼있는 복잡한 인종구성, 문맹율25%에다가 우리처럼 악착스럽게 일도하지않는 이 나라가 사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더 여유가 있다.

말레이지아에살고있는한국교민들은하늘이 복을 내린 나라라며 이 나라를 부러워하고 있다. 싱가포르 같은 주변나라들은 말레이지아가 지천으로 남아도는풍부한자원을갖고 있기때문에 개발에눈을뜨며 한번 발전하기 시작하면 얼마안가 무서운 강대국이 될것이라며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말레이지아가 지금 우리를 보고있다.『東쪽을 보라』고 외치는 마하티르 수상의 직접 지휘하에 관리들과 기업인, 일반국민들이 일제히 한국과 일본을 연구하고 배우기 시작했다.

마하티르 수상이 내걸고 있는 정치구호는 디시플린 앤드 하머니—우리가 한때 내걸었던 總和團結 그대로다.

말레이지아 사람들은 이곳에 나와 있는 한국인 근로자들을『총 없는 군대』라고 한다. 아침 6시면 일제히 기상해서 국기를 게양하고 애국가를 부르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하루 종일 일하고 때로는 밤일도 마다 않고 하는 근로자들을 보고 혀를 내두른다. 총만 없다뿐이지 군인과 똑같다는 것이다. 이같은 규율과 능률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말레이지아 사람들이 제일 배우고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 점이다.

◇天惠의 자원을 밑천으로 의욕적인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말레이지아. 이 나라가 갖고있는 무서운 잠재력은 주위 나라를 두렵게할 정도다. (사진은 말레이지아 제2의 도시 페낭의 중국인 거리)

지난해 12월5일 말레이지아외무성에서 취임후 첫번째 소집한 해외공관장회의를 주재하면서 마하티르수상은 처음으로 룩·이스트·폴리시를 발표했다. 東쪽을 보고 배우자는 정책이다. 일본으로부터는 기술을, 한국으로부터는 정신적인 자세를 배우자는 것이 이 정책의 골자다. 그때까지 교과서로 쓰여왔던 英國의 경험은 이제 쓸모없는 것으로 판정됐다. 눈을 東쪽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 마하티르 수상의 주장이다.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배우는데는 돈이 든다. 그러나 한국으로부터 배우는 정신자세는 돈이들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의 경험을 도입하는데 더 열심이다. 한국은 말레이지아에 대해 精神輸出을 하고있는 셈이다.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신자세라는 생각으로 말레이지아는 TV와 신문, 대학을 동원해서 한국의 경험을 소개하고 대규모 연수단을 만들어 계속 파견하며 한국에 유학생을 자주 보내고 있다.

땅 좁고 사람많은 우리나라 안으로 많은 문제거리를 안고 늘 북닥거리며 아웅다웅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이들이 무엇을 배우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정말 이들이 우리처럼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한다면 장차 어떤일이 벌어지게 될는지 두려운 생각조차 든다고 이곳에 나와있는 교민들은 말하고 있다.

이들이 우리들의 정신과 자세에 눈을돌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자원에 눈을 돌려야 한다. 崔浩中말레이지아대사는 이쪽은 열성적인데 반해 우리쪽은 냉담한것같아 안스럽게 생각될때가 많다고말했다.

姜亨錫 공보관은 이곳사람들에— 경제개발전략의 한 典型으로, 국가발전의 哲學으로까지『한국의 경험』을 생각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거들떠 보지도 않는것같은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말레이지아 사람들이 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12㎞짜리 (세계서 3번째 긴 다리) 페낭브리지를 직접 건설하고 있는 現代의 李庭潔이사 (현장소장) 는 지금 만만찮게 불붙고 있는 코리아·붐이 얼마안가 사그라들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 했다. 뜨겁다가 금방식는 한국적 기질이 이곳에서도 나타나는게 아닌가 싶어 걱정된다고 李誠守과장 (現代) 도 말했다. 아세안의 코리안·붐과 코리아의 아세안·붐이 마주 불붙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답답하기만 한 우리사정에 숨 트이게 되는 시원한 일이라도 좀 생겨나게 될수는 없는지. 【朴武壽특파원】

外信안테나

◆美國系회사들에 郵便폭탄

레이건美대통령의 서독방문에 항의하기위해 우송된 폭탄이 8일 서독각지의 9개 미국계회사에 배달됐으나 폭탄이 폭발하지않아 희생자는 없었다고 서독경찰이 밝혔다.【본=AP】

◆美상원, 核무기동결안否決

美상원외교委는 9일 美蘇核무기의 현수준동결 결의안을 에드워드·케네디상원의원등이 제출, 일단 현수준에서 核무기를 동결한 다음 두 강대국간에 核무기감축문제를 협상하도록 촉구한 이 결의안은 이날 찬6표 반9표로 부결됐다.【워싱턴=聯合】

◆아르헨 敎皇訪問맞아 特赦

아르헨티나는 오는11일 교황 요한·바오로2세의 아르헨티나방문을 맞아 2백44명의 정치범을 석방할것이라고 9일 발표했다.【부에노스아이레스=UPI】

◆튀니지서 참모총장 회의

아랍군참모총장위원회는레바논사태와 관련한『아랍제국의 포괄적인 공동전략』을 마련하기위해 10일 튀니지에서 회의를 갖는다고 바레인의 걸프통신이 보도했다.【매내마=AP】

스탠리奪還 난관
英 제2戰線구축 실패

【부에노스아이레스·런던9日AP·聯合】아르헨티나 공군기들이 8일 포트 스탠리탈환을 위해 제2전선을 구축하려던 영국군의 노력을 분쇄함으로써 영국측의 포트스탠리탈환작전은 당분간 어렵게 될것이라고 9일 아르헨티나 군사소식통들이 말했다.

이 소식통들은 이날 영국공격군의 상륙기도목적은 제2전선을 구축, 아르헨티나의 포트 스탠리수비군을 분산, 와해시키려는데 그목적이 있었으나 아르헨티나 공군기들의 두차례에 걸친 波狀공격으로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소식통들은 또 이날의 영국군의 패배는 1804년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나폴레옹의 프랑스해군이 넬슨제독의 영국무력함대에 의해 무참히 깨지는것과 같았다고 말했다.

영국방송은 이날 영국제5보병여단상병들을 포트스텐리 서남방 25㎞지점의 피츠로이 해안으로 상륙시키려던 가운데 기동함대소속 프리기트함1척, 보급품을 실어나르던 지원함2척이 아르헨티나 공군기로부터 피습됐다고 발표했다.

"이미 때 늦었다"
이란、이라크休戰제의 거부

【런던10日聯合=特約】이란은 10일 이라크의 휴전제의에대해『이미 때가 너무늦었다』며 거부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이란의 국영이란통신(IRNA)은 테헤란發 기사에서『만약 이라크지도자들이 평화를도모했다면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하기전에 이란측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했어야하며 이제는때가 늦었다』고 말했다.

이란지도자들은 이라크에 대해 ▲휴전합의이전에 이라크군의 완전철수 ▲1천5백억달러의 전쟁보상금지급 ▲사담·후세인 이라크 정부의 전복등을 요구해왔다.

海外토픽
『날으는 엔진』開發
★새처럼 비상·정지등 가능

하늘을 날으는 새들과 같이 공중과 지상에서 30여분동안 자유자재로 날기도하고 정지할수도 있을 뿐만아니라 수직이륙이 가능한 1인승비행체가 개발됐다.

『윌리엄즈항공체계플래트폼』(WASP·사진) 으로 불리는 이 비행체는 美미시간州 월드·레이크 소재 윌리엄즈·인터내셔널社가 60년대와 70년대에 선을 보였던 로키트·벨트에서 착안, 최근 개발해낸 것으로 양쪽날개가 없는 실린더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시속 60마일의 속도로 어느곳에나 착륙할수있는 이점을 갖고있다. 【포트베닝(美조지아州)=UPI】

記者의 눈
록히드와 워터게이트

일본政界가 또다시 록히드사건으로들끓고있다.

東京地法은 8일 일본전후 최대의 의혹사건으로 불려지고있는 록히드사건관련자중 현역의원등 2명의 정치인에 대해 수회협의를 인정, 유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다나까前수상및 니까이도 現自民黨간사장등 5명의 수회사실도 확인했다.

이같은 판결을 계기로 社會黨등 야당은 스즈끼 自民黨정부에 대한 대공세를 취하고 있으며 自民黨 내부에서도 주류—비주류간에 심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76년2월 美上院 다국적기업小委에서 록히드社의 對日 부정공작사실이 밝혀지면서 비롯된 일본 검찰당국의 차분하고 끈질긴 수사가 결국 개가를 거둔 것이다.

마침 올해는 워터게이트사건이 일어난지 10주년이 되는 해다.

72년6월17일 프랭크·윌즈란 이름의 경비원이 워싱턴市 워터게이트빌딩에있던 민주당 전국선거위원회의 문에 테이프조각이 붙어있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비롯됐던 이 사건은 결국 닉슨현직 대통령을 사임케했다.

록히드사건이나 워터게이트사건은 둘다 전형적인 권력형 범죄사건이라는점에서 뿐만아니라 이를 취급·수사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공통점을 갖는다.

공직자의 윤리가 새삼심판대상이 되었던 두사건은 결국 법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며 모든 위법행위는 처벌받아야 한다는 냉엄한 논리가 실천되는 실례를 보여준 것이다.

워터게이트사건이 미국정치가지닌 추악한 이면과 「죽지않은 도덕성」을 동시에 노출시키고 확인해 준것이라면 록히드사건은 일본의 金脈정치의 부패한 단면을 드러낸 것이면서 일본의 양식은 의연히 살아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두사건은 미국과 일본의 다른정치풍토를 대변한다.

사건이 터진지 2년후인 74년에 의회의 탄핵안 심의에 앞서 대통령직을 물러난 닉슨이나 그밖의 워터게이트 관련자들은 10년이지난 지금 과거와는 다르지만 저마다 새로운인생을 즐기고있다.

한편 76년부터 시작된 일본검찰의 록히드사건수사는 6년만인 지금에서야 겨우 두명의 정치인에 대한 재판을 열수 있었다.

그만큼 검찰의 수사는 끈질겼으며 한편으론 느긋했다.

최대의 정치스캔들을 검찰이 차분히 여유를 가지고 하나하나 소신있게 파헤쳐 나갈수 있는 일본 역시 매질하여 내쫓은 대통령을 연단에 다시 세우고 강연을 경청하는 미국 못지않게 큰 나라인것 같다. 【朴永韶기자】

메아리
戰爭과 平和

지금 世界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平和라고 대답할이도 많겠다. 미국서 제의한 戰略核감축회담을 소련이 받아들여 본격 협상을 전개하게되고 유럽의 中距離 核무기 감축회의는 그대로 진행중이며 유엔에서는 5주간의 회기를 정해 두번째 世界軍縮특별총회를 열고 있다. 또 소련은 中共에대해 「和解」의 윙크를 보내고 中共도 마냥 싫지않다는 표정을 짓는듯 16년만에 소련육상경기팀이 北京땅을 밟게 하였다.

그러나 地球 여기 저기에는 어느때 보다 강렬한 화약냄새가 풍겨지고 있다. 포클랜드섬에서, 레바논에서, 서·아프간에서, 그리고 때때로 韓半島내의 휴전선에서.

戰爭도 아니고 平和도 아닌 것이 오늘의 세계상도 인듯 하다.

레이건 대통령은 유레카大學演說에서『平和란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것 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하면서 「平和的手段」을 갖추고 그것으로써 분쟁에 대항하여야 이를 平和로 볼수 있다고 역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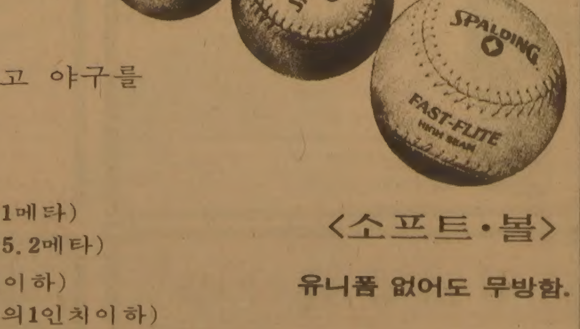
브레즈네프의 후계자로 최근 KGB의 우두머리인 안드로포프가 대두되었지만 이런선택이 平和에 대한 의지에서 가다듬어진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도 蘇聯이 中共에 和解를 요구하는것은 「平和의 手段」이 되지 않겠느냐고 反問을 하겠으나, 이는 오히려 더 큰 紛爭에서 이기기 위해 작은 紛爭을 묻어버리자는 의도가 내포된것으로 볼수있다.

또 중거리核미사일이나 戰略무기감축협상에 응하는점으로 보아 平和의 비둘기에 더 마음이 끌리는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도 있을법하다. 그러나 벌쩍뛰는사람은 美國이 5~10년사이에 제實力으로 소련의 核「優位」를 따라잡지못하도록 하기위해, 「協商」을 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해 댄다.

소련이 브레즈네프의 退場을 눈앞에 두고 조용히 움틀거리고 있는것만은 사실이다. 그것이 「平和」나 「戰爭」어느쪽으로 가는것인지 조심스레 살펴야 하겠다. 美國의 아시아通인 스칼라피노교수는 최근『소련이 亞太지역에서 30년전보다는 많이 弱해졌다』고 진단하였다. 과연 들어맞은 진단 일지, 속단은 금물일듯 하다.

제1회 한국일보사배
어린이(리틀) 야구 대회

귀여운 자녀에게 야구를…



북미에서 야구는 일상생활의 빼놓을 수 없는 한부분입니다. 자녀들에게 야구를 가르치고 야구를 통해서 스포츠맨쉽을 체득하게 하며 아울러 교포 자녀간의 우애와 자부심을 키웁시다.

일 시 : 1982년7월3일(토)아침9시부터
⊙우천시는 8월17일(토)로연기(같은장소임)
장 소 : 코로네이션 파크(구장2개사용함)
(CNE정문앞. 레이크쇼어×더퍼린과 베더스트 사이)
선수자격 : 1970년1월1일이후 출생자
참 가 비 : 팀당 $50
시 상 : 1.2.3등(에뉴얼 트로피)최우수선수상, 피쳐상, 타격상, 미기상, 감투상⊙선수 각자에게 기념품 증정
★OASA(온타리오 아마츄어소프트볼협회)규칙을 적용.

볼크기(11인치)
투수거리(33피트—10.1메타)
베이스거리(50피트—15.2메타)
Bat(배트)길이(34인치이하)
직경(2과4분의1인치이하)
심판및 진행위원장 : 박재선씨
감독자회의 : 6월24일(목)오후7시 한국일보회의실
연 락 처 : 한국일보사 송광호(533—2361)
박재선(755—6434) 이건영(598—3732)

〈소프트·볼〉

유니폼 없어도 무방함.

주 최 : 토론토 한국일보
후 원 : 토론토 한인회·대한체육회 캐나다지부·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

하루도 빠지지않는 힝클리公判記事

레이건 殺害犯…1년넘도록 證言청취 단계

◇사건발생 1년이 지난뒤에도 지방법원에서 심리가 계속중인 레이건대통령의 저격범 존·힝클리 공판。누구에게나 자신을 방어할수있는 충분한 기회와 모든절차가 보장되는 미국사회의 한단면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은 바쁜 나라다。매일 사건이 있다。매일 산더미처럼 쌓이는 신문을 보노라면 그것을 더욱 실감한다。포틀랜드사태에서 예바는 예산 세금범죄。매일같이 신문과 TV를 통해 엄청난 뉴스와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런 뉴스홍수속에서 연일 지면에 빠지지않고 차지하는 레이건 대통령을 저격한 존·힝클리에 대한 공판기사이다。작년 3월30일이니까 벌써 1년을 넘긴 사건이지만 아직 지방법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을 앞둔 증언청취의단계에 불과하다。그것도 논란의 주제는저격범 힝클리의 배후가누구냐는 따위가 아니라 그가 정신적으로 온전한상태에서 범행을 했느냐에 관해 연6주째 검찰과 변호인측 각종증인에정신분석학자까지 동원해 불꽃튀기는 설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바쁘게 돌아가는 나라답지 않은 사건처리인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설혹 범죄자라도 누구에게나 충분히 방어의기회가 주어진다는 극히 미국다움을 보는것같기도 하다。

힝클리는 정신적 불건전이 받아들여진다면 감옥대신 정신병원의 수용으로 끝나게된다。

"정신적 不健全"싸고 攻防
犯罪者라도 충분한 방어기회줘

特派員 노트

세계를 떠들썩하게한 레이건 대통령저격이란는 사건규모에 비해 시비의 초점은 김빠지는 것같은 느낌이다。

하지만 연일 법정은 이것으로 시종되고 신문·TV등은 이증언들을 남김없이 보도하고 있다。

힝클리의 정신적 불건전은 물론 변호인측에서제기했다。상류가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힝클리는 작년 레이건 대통령을 저격하던 날 권총을 갖고 투숙했던 호텔을 나서면서 짝사랑했던 여배우조디·포스터양에게『당신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위해 더이상 기다릴수없다』는 편지를 남겼었다。

변호인측은 이런 행동들을 들고나와 힝클리가 포스터양에 대한 좌절감으로 인해 내면적인 격노로 시달려 왔으며 자살로써 포스터양과의 영원한 결합을 망상해왔다고 주장했다。

3명의 변호인과함께 법정을 나온 정신병학자인 데이비드·베어박사는 힝클리를신문한 결과, 狂人은 아니라하더라도 심한 내면적 좌절감때문에 시달려왔으며 오래된 정신분열증과 정서적메마름, 망상에 사로잡혀 왔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검찰측의 주장은 물론 다르다。힝클리가 정상인임을 보여주는 여러가지 행동을 해왔다고 주장했다。변호인측이 유명한 학자를 동원한데 맞서 검찰측도 하버드의대 정신병학교수인 파크·디에츠 박사를 등장시켜 변호인측을 논박했다。

디에츠박사는 자신이 레이건 대통령 피격 25시간후에 힝클리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고 말하면서 힝클리가 불안과 성적적 혼란에 시달려온 것은 사실이나 행동을 통제할수 없는 상태는 아니라고 말했다。

디에츠박사는 힝클리가 사건 수개월전부터 자기가 자기몫의 재산을 갖지 못했다고 불평하면서 일을 안하려고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기도 했고, 한때는 할리우드의 가수가 되려다가, 또 한때는 시와 소설을 쓰겠다고 하는등 노력없이 명성을 얻으려는 행동을 보여왔다고 말해왔다。

그는 힝클리가 도덕적관념도, 준법에대한 의지도 있어 충분히 자기의 행동을 처리할 수있는 상황이며 경호원의 응사를 의식, 군중사이에 섞여 있는등 자살로써 포스터양과의 이루어질수없는 사랑을 성취하려 했다는 변호인주장을 논박했다。

검찰측증언이 끝나고 배심원의 평결이있으려면 아직도 수주일이 남아있다。

그간 법정에서 공판을지켜본 사람들은 힝클리가 시종 단정한 자세로 앉아있었으며 어느구석에서도 평범한 청년외의 모습은 찾아 볼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단한가지 비정상적이었던 것은 여배우 포스터양이 자신은 힝클리를 몰랐다고 증언했을 때 배심원들조차도눈치못채게 자리를 일어나 나갔다는 것이다。

물론 힝클리공판은 미국사람들의 관심거리다。

하지만 케네디나 킹목사등의 암살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미국의 수치라고 격노했던것과는 다르게 조용히 공판의 시말을 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저격이라는 사건의 규모나 내용과 관계없이 법의 절차는 항상 존중된다는 것을 당연한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자세이다。

증언이 끝날무렵 주심인 배링턴·파커재판장은 배심원들에게 힝클리는 정신적장애자로 인정돼 무죄가 평결되면 자동적으로 정신병원에 수용되며 그런 경우 평결 50일이내에 힝클리의 석방여부를 결정하기위한 증언청취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李文熙특파원】

세계의 社會面

美國의 골칫거리 失踪 어린이

매년 2천명이 無名墓地로

이혼夫婦 보복으로 유괴하기도

어린이 실종문제가 미국인들의 큰관심사로 대두되고있다。현재 미국에는 15만명의 12세이하 어린이들이 길을 잃었거나 유괴, 납치되어 거리를 헤매고있다。

자동차를 도둑맞으면 그 번호판숫자가 눈깜짝할 사이에 전국을통해 수배되지만 어린이의경우 신원수배가안돼매년2천명씩이나이름없는묘지에묻히고있다。

인명을 존중한는 미국사회에서 이 버려진 어린이들을 찾기에 도움이 될 정보를모아 관리하고 널리알리는기관조차제대로없다는 것은믿기어려운사실이다。

79년5월25일 맨해턴남부의 소호지역에서 실종된 에턴·페이츠소년(당시6세)역시생사를모른채버려져있는어린이가운데하나。

뉴욕의 비영리단체인 차일드·파인드 (어린이찾기·CF)는 에턴의 실종3주년이 되는 지난달25일을「실종아동들의 날」로정하고 전국의 많은 지원단체들을 통합, 어린이 찾기운동을 보다 체계화하기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 방안가운데 중요한4가지 이슈는 ▲실종아동에 대한 전국통계조사실시 ▲실종아동조례의 의회통과 ▲유괴예방을 위한 어린이 안전프로그램을 전국의 학교에 도입 ▲실종아동명부출판을 위한 기금 모금등이다。

플라·허킨스상원의원에 의해 제안된 실종아동조례에 따르면 미연방수사국(FBI)이 운영하는 집중정보센터이 모든 실종아동에 대한 보고를추적, 각 지방경찰이 그 정보를이용토록 요구하고 있다。

허킨스의원은 실종아동의 10%만이 FBI의 전국범죄정보체제에 통보된다고 지적했다。그는자동차 총기 심지어 냉장고까지 소재파악이 되고있는 마당에 실종아동에대해 손을 못쓰는 것은 국가적불명예」라고 주장했다。

수사당국은 부모들끼리 서로아이를빼앗아가는것과 같은 결혼분쟁에 끼어들기를 꺼려하는가 하면 실종신고를 해도 단순가출로여겨 소재파악을 제대로 하지않고있다。

81년7월 플로리다의 한 배화점에서 유괴되었다가 한달뒤 목잘린 시체로 발견된 아담·월시군(당시6세)의 아버지 존·월시는 실종아동조례에 관한 의회증언에서 이렇게호소했다。

『경찰이 생각하듯이 어린이들이 집에서 도망나가는게 아니라는 것을 믿기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잃어버린아이들을 찾아달라고 연방수사기관에 부탁할만큼 비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다만 중앙집중체제를 갖추어 지방경찰이 수색할수 없을때 FBI가 언제고 협조할수 있기를 청원할 뿐입니다』

차일드·파인드보다 이상정안에 적극적인 단체는없다。이 가구가 펴낸 65페이지짜리 실종아동명부는 유괴된 어린이 사진으로채워져있다。이 명부속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의해 납치된 어린이도 있다。

사설탐정인 엘리스·보이론은『부모가 자식을 유괴할경우 덜 위험하다』는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면서『아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헤어진 부부가 상대편에대한 보복의 한방법으로 유괴하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설명했다。

CF를 창립한사람은 7세된 딸을 전남편에게 유괴당한 글로리아·예코비치여사。그녀는 3년간 각종비용으로 4만달러를 썼고 비용을 대기위해 2개의 직장을 풀타임으로 뛰었다。

지난 2년간 CF는 실종어린이부모·변호사·경찰관및 사설탐정을 포함한 3천명의 자원봉사자 및 연락망을 확보했다。

CF에서 발행한 안내책자 표지에는『부모가 자녀를 찾을때 자녀도 부모를 찾는다』고 쓰여있다。【로스앤젤레스支社】

各界의 사회면

소련 上流層은 섹스映畫즐긴다

黨 서열따라 비밀극장서 은밀히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공산주의이론에 관해 운종일 열변을 토한 소련의 고관들은 어떤 방법으로 휴식을 취할까。

그들이「더티·하리」와 같은 미국영화나 실물크기의 女體고무인형을 애인으로 삼고있는 치과의사얘기를 다룬 佛·伊합작영화「실물크기」를 구경한다면 어떨 것인가。

그것이 바로 지난해 제26차 소련공산당대회에 참석했던 위원들이 즐겨했던 짓이다。

아프가니스탄군사작전을 계획한뒤 긴장을 풀기위해서「카산드라·크로싱」과 같은 脫走영화를 감상하는 것은 어떨까。

그것 또한 소련 붉은군대의 장성들이 하고있는일이다。

소련영화를 심사하면서 기분전환으로「代父」「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타워링·인퍼노」같은 영화를 감상하는것은 어떨까。

그 역시 소련의 영화심사관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버릇이다。

◇소련의 고위층들은 겉으로는 서방의 도덕적타락을 비방하면서도 서방의 섹스영화등을 은밀하게 즐기고 있다。사진은 소련의 비밀극장에서 인기를 끌고있는 영화「에마뉴엘」의한 장면。

이같은 소련 상류층인사들의 영화감상 버릇에 관한 얘기들은 1년여를 끌어 지난달 최종판결이 내려진 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니콜라이와 나데즈다·판코프, 이두사람은 소련의 국립영화심의기구인 고스키노소속 영사기사였다。

이들은 이민을 신청한 직후 간부진 감원을 이유로 해고됐다。

지난해 이들은 복직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판결은 예상대로 패소로 끝났다。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6년의 고스키노 재직기간동안 그들이 소련의 선택된 관중들에게 서방의 영화들을 특별 상영을 했던 얘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서방의 도덕적 퇴폐를 비난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섹스 영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니콜라이는 말했다。

판코프에 따르면 이같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다。

소련의 특수층들은 국내배포용으로 고스키노가 입수한 영화를 감상하고 또 불법복사도 한다。유고슬라비아, 항가리등 보다 개방적인 東歐국가에서 상영된 필름이 소련으로 흘러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필름 東歐圈통해 들어와

특수층 아파트돌며「特別上映」

지독한 포르노영화나 反蘇영화들은 밝혀지지 않은 경로로 입수돼 특수금고에 보관된다。

이같은 영화들은 黨서열에 따라서 감상이 허용된다。

정치국이나 당중앙위원회 위원들이 제일 먼저 보게된다。비밀경찰(KGB) 소속영사기사들이 특수층 인사의 아파트를 은밀한장소에서 이들을 위해 영화를 틀어준다。

행정부서의 관리들은 두번째 차례인데 물론 그들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식적인 입장과 사적인 행동사이의 이같은 모순은 소련의 특수층인사들에게 몇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79년 베를린영화제에서 소련대표들은 월남전쟁을 테마로한 미국영화「디어·헌터」가 출품됐다해서 퇴장했었다。그러나 이 영화는 비밀극장에서는 인기를 끌고있다。

또「엑소시스트」「오멘」등 심령영화는 물론「에마뉴엘」등 소프트한 섹스영화에서 지독한 포르노영화도 인기품목이다。

그러나 소련의 서민들은 서방의 영화를 감상할 기회는 전혀 없다。서방의 예술작품에 전염되는것은 연령을 불문하고위험스러운것으로간주되고있다。

고스키노의 창고안에 보관중인 서방필름가운데 월트·디즈니영화가있으나 이역시도 특수층 자녀들만이 관람할수 있다。【뉴스위크誌】

가리발디 將軍

오는날의 이탈리아공화국을 가져다준 이탈리아통일 三傑중의 한사람인 가리발디장군은 이탈리아애국심과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汎국민적 추앙을 받고있다。

그가 프랑스및 오스트리아와 싸웠던 이탈리아통일전쟁에서 지휘한 草衣의 의병인「붉은셔츠부대」의무용담은 아직도 이탈리아국민들에게 愛誦되고 있다。

지난2일은 가리발디장군서거 1백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기념행사를 둘러싸고 政情이 불안한 이탈리아정가는 한바탕 부산을 떨었다。

지방선거가 코앞에 닥쳐있고 곧이어 총선이 실시될참인지라 이탈리아정당들은 저마다 가리발디장군의 이미지를 선거유세에 십분활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공화당소속의 스파돌리니수상과 사회당수인 크락시씨는 서로다른 가리발디장군의 유적지에서 1백주기 추도식을 거행해 유권자의 관심을 끌려했다。

두명 모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열렬한 가리발디장군의 추종자를 자처하지만 이들이 노리는바는 서로 달랐다。

두사람은 次期이탈리아총선의 승리를 노리는 떼놓을 수 없는 정적이니까。

하지만 정작 가리발디장군은 정치와는 거리가 먼 순수한 애국열정을 지닌 의병지도자이자 민중운동가였다。

1860년 나폴리에 입성했을때 그의 인기는 당시 국왕이던 빅토르·임마누엘을 능가했다。

만약 그가 정치적야심이 있었더라면 국왕을 퇴위시키고 이탈리아의 實權者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임마누엘국왕의 충실한 신하로 白衣從軍했으며 노구를 무릅쓰고 이탈리아통일을 위한 수많은전투를 치러냈다。

가리발디장군과 함께 이탈리아 통일三傑로 일컬어지는 카불과 마찌니가 知略과理論에서는 출중했지만 가리발디장군이 이탈리아국민의 절대적 숭상을 받게된 이유는 이같은 그의 사심없는 순수한 애국심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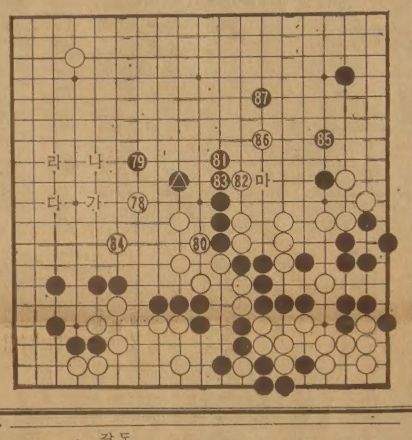
자신의 이름이 선거유세에 이용되고있는 현실을 지켜봐야만하는 지하의 가리발디장군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

진정한 애국자의 순수한 애국충정마저 정치적심리를 위해 동원해야만하는이탈리아정객들의심리가 너무도 얄팍하기만하다。【李炳圭기자·外信部】

제13·71 名人战 挑战5番棋

第1局 第8譜 78～87

白(挑戰者) 徐奉洙
黑(名 人) 曹薰鉉
(각5시간·덤5집반)



비상수단으로 하변을 간신히 안정시키고 白78로 달아나게 되었지만 중앙은 여전히 불안하다。20분이나 고심하고 결정한 78인데도 黑의 공격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다。더구나 黑79가 승부장구의 기세로 떨어졌다。때는 하오6시。白이 3시간40분을 소비한데 대하여 黑은 3시간20분。名人도 전보이래 장고를 거듭하고있다。

白80은 11분。이수로 계속달아나자면 白「가」에 뛰어야한다。그러나 黑「나」白「다」黑「라」로 늦추지 않고 위협하면 白은 견디기 어렵다。따라서 白80으로 제자리삶을 피하며

戰線은 擴大一路

黑의 호조의진격을 피한것은 어쩔수가없다。

여기서 名人은 중앙공격을 일단중지하고 9분동안 망설이더니 黑81로 뛰고 白82에는 당연한 黑83을 6분이나 생각했다。그리고 白84때 黑85로 싸움터를 옮겨갔다。

하지만 이과정에서 名人은 공세를 계속취할 찬스를 잃었다。국후검토에 따르면 黑81은 몸조심한 수법이지만 이경우는 완착이라고 한다。白84로 중앙이 안정되어 장기전의 양상으로 변한것은 그렇다하고 81로 직접 85면 白은 더욱난처했다。또 어차피 85를둔다면 81은「마」의 곳에 있어야 유리하다。

黑87은 돌소리도 야무졌다。▲표와 79등처럼 일종의「모자씌우기」인데 이같은수가 적중할때는 대체로 유리하다고 한다。【一九】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34>

朴婉緖 作
金光培 畵

응달 ⑭

오목이는 연탄아궁이위에 끓는 물을 두개의 대야에 나누어 퍼서 알맞게 온도를 맞춘 세수물과 치약을 짜놓은 칫솔과 양치질물을 방으로 들여보내고나서 연탄불위에 찌개남비를 올려놓고 아침상을 봤다。

투덜대면서 세수를 끝마친 춘자가 물대가리고 악을 쓰자 오목이는 물그릇을 들어내고 방바닥을 훔치고 상을 들여놓았다。

오목이는 그런 일들을 타고날때부터 익힌 몸종처럼 감정을 나타내지않고 소리없이 해나갔다。

춘자는 이것 저것 반찬맛을 보면서 칭찬도하고 감탄도하다말고 또 갑자기 화를 냈다。

『언니 정말 왜 이러우? 날 이렇게 호강시켜서 상전 몸종 없이 못살게 하려고 그러는거지?날 그렇게 병신만들어놓고마냥나한테 붙어 몸종노릇을 해먹으려고? 언니는 자존심도없우?』

『말 조심해』

오목이가 드디어발끈했다。

『그래 그렇게 나올줄 알았어』

춘자가 젓가락으로 찌개건더기를 건져 올리면서 약을 올렸다。오목이는 곧 평정을 회복하고 알팔지게 숟갈질을 했다。

『언니 내가 밉지?』

춘자는 원래 화도잘냈지만 반성도 잘했다。

『아닌』

『나 정말 왜이런지몰라? 고아원 동기면우리한텐 친동기나 마찬가지 아뉴?』

『그럼,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너를 찾아온거야』

『정말은 나 언니한테 잘해주고싶어。독하게 굴고는 곧 후회해。언니한테 못할 소리 해주고 나갔다 들어올땐 언니가 그 동안에 도망 갔을까봐 겁이 나。언니 나 없을 때 도망가면 안된다』

『내가 왜 도망을 가니? 가고싶으면 정정당당히 가지』

『정말 그래 줘야 해。앞으로 내가 더 못되게 굴더라도…』

『염려마。네가 뭐래도 난 네 몸종이 아니니까 도망같은 건 안가』

『역시 몸종소리를 꽁하고 접어뒀었구나。오금을 박게』

『미안해』

오목이는 얼 빠진듯하면서도 넉이선 얼굴로 말하고 숟갈을 놓았다。

『언니는 그동안 잘 지냈을테니까 그런일 없었겠지만 난 가끔 고아원시절이 그리워 운 적이 많다우』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결국 우린 고아원만 면한 거지,고아를 면한건 아니었어』

『넌 고아가 별안간 공주님으로 밝혀 진다거나,천신만고 부자 부모를 찾아내는 옛날 이야기를 참 좋아했었지』

오목이는 문득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을 빛내던 춘자의 어린시절의 모습이 떠올랐다。무심히 흘려버리고 다신 생각한적이 없는 그아이의 행복해하던 모습이 비통하게 그녀의 마음을 쑤셨다。지금 춘자는 그런 꿈이 가득찬 비쩍 마른 아이가 아니었다。오목이보다 훨씬 세상 풍상을 앞서 겪고 아는것도 많은 술집여자였다。

오목이는 자신보다 훨씬어린 춘자가 지금 자신보다 앞서 늙어있음에 자주 아뜩한 혼란을 느꼈다。그렇지만 자기만 세월과는 상관없는고장사람인양 춘자를 스쳐간 드센 세월을 바라본다는 건 얼마나 교만한 환상일까?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流星의 賦 <406>

李炳注 作
李友範 畵

壬辰의 해는 저물어 ④

권율은

『대소 수백회의 싸움이 있었소 만 명색 승리를 했다고 하는 전투도 이렇다 할 보람이 되지 않는 것은 진주성의 전투를 보아도 알 것이란』

며 현재 경상도와 전라도가 처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그는 양차에 걸친 성주전투와 기타 전투에 있어서의 패인(敗因)을 들먹이며 한숨을 지었다。그리고 물었다。

『홍공은 이 판국에 해야 할 가장 긴급한 일이 무언지 아시오』

『무엇보다도 민심의 수습이라고 생각합니다。민심이 하나로 되어 있으면 백성 하나 하나가 성(城)으로 되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홍공의 말이 옳소。그러나 그게 쉬운일이 아닌것 같소。상감께선 의주 행재소에서 다음과같이 탄식했다고 하오。『용만일우(龍灣一隅)에 천보(天步)가 가난하고, 지유(地維)가 기진(已盡)하니 과인이 장차 어디로 갈것이오』이 소식을 듣는자 눈물 흘리지 않고 배길수가 있겠소』

『그래서 선비들이 책읽기를 그만두고 일어섰으며, 산속의 승려, 농촌의 장정들이 일어서서 싸우고 있는것이 아니겠읍니까。그런데 수많은 역도들이 생겨나고 있다고하니 사혁의 그 섭가놈 같은 놈들이 말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진 맙시다』

하고 권율은 흉금을 털어 장차의 방략을 말하기로 하여 계남의 의견을 물었다。

그렇게 밤을 지내고 새벽에 계남은 자기의 본거로 돌아왔다。돌아오는 도중에 얻은 착상(着想)이 그

유명한「통고호서열읍 격문」(通告湖西列邑檄文) 이란 것이다。

계남은 이격문으로서 2중의 효과를 노렸다。하나는 보다 많은 의사(義士)를 모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반도(叛徒) 들이 그것을 읽고 반성 회개하는바 있도록 해야겠다는데 있었다。격문은 다음과같다。

『이 땅에 나서 음식을 먹고, 숨을 쉬고 사는 자는 마땅히 무기를 베개로 삼고, 와신상담하여 군부(君父)의 원수를 갚아야 할 것이다。나는 불행하게도 이 흉변을 만나 적의 칼날에 부형을 함께 잃었다。어찌 적과 더불어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가 있으리오。이러한 나와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이 원근에 반드시 수백 수천은 넘을 것으로 아오。그리하여 여기에 의병을모아 일대를 만들어 부형의 깊은 원수를 갚을까 하오。부모와 처자의 해골이 들에 흩어져 그 원혼이 의지할 바 없는데 어찌 우리가 안연할 수 있단 말이오。그런데도 복수할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 구천지하의 부형에게 무슨 면목으로 대할 수 있을 것이리까。어찌 부형께서 나에게 아들이 있고 동생이 있다고 할 수 있으리까…』

계남은 이 격문 수백통을 만들게 하여 심복의 부하들을 시켜 열읍에 살포 또는 전달하도록 명령하고 그 자리에서 경기감사 심대의 최후를 알렸다。

『부왜반도(附倭叛徒)가 창궐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일이지만,그런 자들을 방치한다는것은 단지 나라의 수치일뿐 아니라 백전백패할 원인을 만들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소。적을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왜반도의 적발이 더욱 시급하오』

Maximode

○ 숙녀를 위한 수입품 불란서.
이태리 챗츤 옷을 전시한
현대식 쇼우룸.
가격이 저렴합니다.

OPEN : MON(월)~SAT(토)
9 a.m.~5 p.m (오전 9 시~오후 5 시)

147 Spadina Ave. #200 2층
☎ : 596—1413

운전교습

SOUTHERN ONTARIO
DRIVING SCHOOL SPECIAL

10시간의 개인운전교습 집으로나
사무실로 모시러갑니다.
ONLY $129.00

무료신청서, 무료핸드북, 무료필기시험에 필요한것.
한번 와 보십시요. ✱조금의 영어가 필요함.
월—금 오전10시—오후5시

2489 BLOOR ST. W. SUT210
(BLOOR & JANE 써브웨이)
766—4441, 766—4644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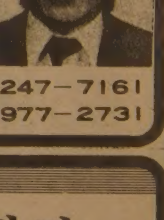
영업시간 :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매일공연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김명종한약방

침·보약(탕약과 에스키 약제), 심신 모두 피로·기혈부족·신경과민·노이로제·허리병·근육통·부인병·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빙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 411
☎ : 745—2058

JAGUAR 종합보험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자동차보험.
✱비지네스 보험.
✱집보험.
✱생명, 상해보험, 등
⊙영어를 할수있는 한국학생
(파타임) 구합니다.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

佛光寺 법회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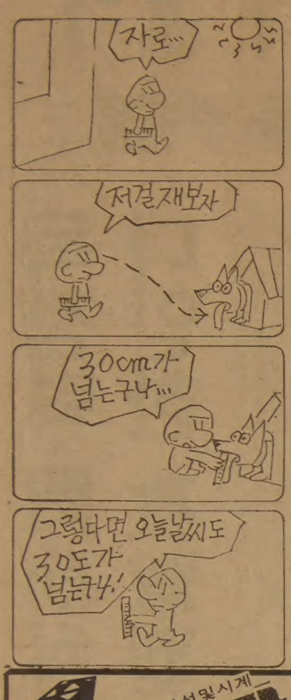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내고향통닭집

냉 면
칼국수 전문

658½ BLOOR ST. W.
☎ : 537—0432

두꺼비 안의섭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高淑鍾피고 2審서도 無罪

尹노파被殺 抗訴審선고

"原審의 自白 신빙성排斥 정당"

◇高淑鍾피고인

서울龍山區元曉路 尹景花씨등 일가족피살사건의 高淑鍾피고인(47)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제2형사부(재판장 金永振부장판사·배석 金元濟·李根雄판사)는 10일 하오2시 高피고인에대한 살인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자백조서는 임의성은 있으나 신빙력이 없다고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다』고 판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高피고인은 지난2월1일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이에 불복, 항소, 지난달 28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원심이 검찰에서의 자백은 임의성은 있으나▲현장의 객관적상황과 모순되고 ▲객관적합리성이 결여되어 사리에 반하며▲허구적인 사실이 포함되어 있을뿐 아니라▲진술의 일관성이없어 신빙성이없다고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원심이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에대해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등에 의하여 나온 임의성 없는 진술이라고 증거능력을 배척한것역시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밖에 ▲검찰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범행동기가 설령 있었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범행을 인정할만한 유죄증거가 되지 못하며▲高피고인이 뒤뜰에서 나일론끈을 들여오면서 뒷문을 다시 잠갔다고 한 점이나 3사람을 죽이면서 2개의 나일론끈만을 들어 왔다는 점등은 경험론상 맞지않고 ▲尹씨가 망치로 가격을 받은 상태에서 4~5m를 기어가 계단난간에 스스로 끼었다는 주장 역시 계단높이, 난간폭, 尹씨의 체격등으로 미루어보아 인정하기 어려우며▲검찰에 송치되기 3일전 그레이스 호텔에서 실시된 자백녹음 역시 피고인이 임의로 자백했다고 인정할수없다고 밝혔다.

이사건은 지난해 7월22일 발생, (경찰추정) 1심에서 9회의 공판을거쳤고 항소심은 지난4월8일 첫공판이시작돼 5회의 공판을 가졌다.

이날 공판에는 서울고법 裵護鍾검사가 간여했으며 高피고인의 1심때부터의 변호인인 金炯準변호사와 高피고인의 남편 尹永培씨(47) 동생 高鍾旭씨(43)등 가족들이 지켜봤다.

즉각 保釋해야 辯護人측 요구

한편金炯準변호사는『1심 선고직후 보석신청을재판부에 낸바있다』고말하고『2심에서도 무죄가 난이상 보석이 불가능할 이유가 없다』고주장,『현재판부가 그에관한 결정을 즉각 내려줄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설 證據재판주의 재확인

이번 항소심판결은 엄격한 증거요건을 요구하면서 수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를 강조한 원심판단내용을 그대로 인정했다는점에서 법원이 증거재판주의의 의지를 재확인한것으로 보인다.

특히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자백의 임의성을 인정해 주면서도 유·무죄를 가릴 증명력은 없는 것으로 본 것은 다시 한번 수사기관에 대해 증거재일주의를 요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사건은 아직 법률심인 3심이 남아있으나 증거채택에있어 하급심보다 더 엄격한 추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 우리 대법원이였다는것을 상기할때 검찰의 결정적인증거보강이 없는한 역전의 가능성이 없다는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전망이다.

검찰은 항소이유에서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면장갑과 소파커버의 혈흔▲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망치의 손잡이에서 발견된 尹씨의 혈흔▲尹노파의 발견상태에 대한 신경외과 학회장 이인수 박사의 증언▲새로운 정황증거등을 보강증거로 내세웠으나 재판부는『피고인의 경찰및 검찰에서의 자백을 증거능력이 없다고 배척한 이상 그외의 증거는 없다』고 명쾌한 결론을 내린것이다.

高피고인는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기때문에 바로석방되지는 않는다.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구형된 경우 무죄가 선고돼도 구속영장의 효력이 계속되기때문이다.

현재 高피고인에대한 보석신청은 재판부에 계류돼있는데 재판 관행상 상고심에 기록이 송고되기 전 2심재판부에서 허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高피고인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될 경우 미결구금일수 1일당 5천원의 형사보상금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다. 【林永茂기자】

심부름센터 變態영업

解決士노릇에 공사장 人夫소개도

최근 성업중인 심부름 대행업소와 서비스센터 등에서 특정인의 사생활을 들춰내고 빚을 대신 받아주는 해결사 노릇도하며 공사장에 인부를 소개해주는등 변태영업을 하고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시경은 10일 서울 江西區 鹽倉洞 186의4 大韓 컬렉션 주식회사 대표 趙相基씨(30)와 서울 中區 中林洞 28의1 이서비즈니스 대표 金泰丑씨(31)를 신용조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서울 江西區 新亭3洞 31의33 심부름센터 대표 鄭次男씨(38)를 직업안정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沃川에 집단이질

7일發病 한마을住民 25명 高熱·설사

【沃川】충북沃川郡淸山面下西里 주민25명이 이질에 걸려 집단으로 앓고있다.

이질은 지난7일 朴채하씨(45·淸山面下西里129)가 처음 앓기 시작, 점차 번져 10일현재 초·중·고생을 포함, 남녀25명이 앓고있는데 이들은 심한 고열과 피섞인 대변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다.

환자중 全孝林씨(45·淸山面下西里158)의 1남 형석군(14·淸山中1년)은 심한 고열과 피섞인 설사로 현재 沃川성모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있다.

80여가구 4백여주민이 살고있는 이마을은 4년전에도 주민20여명이 집단으로 이질에 걸린등 수인성질환발생 상습지로 알려진 곳이다.

이마을주민들은 현재 마을 공동우물1개소와 개인우물 20여개소를 이용, 식수및 생활용수를 충당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사실을 뒤늦게 안 郡보건당국은 10일 현지에 방역진5명을 급파, 정확한 발병원인을 조사중에있으며 환자격리수용및 주민 채변검사·소독작업등을 벌이고 있다.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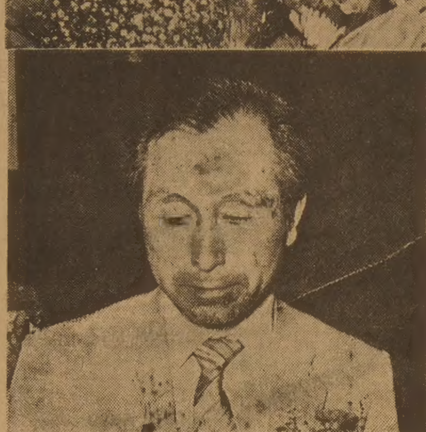
거센 파도에도 師道의 등불 밝혔다

제1회 한국教育者大賞 시상

各界의 祝福과 弟子들의 꽃다발속에 묻혀

"교육자는 民族生存의 보루" 李文教

"失意·패배의 教育者像 추방" 張會長


◇제1회 한국교육자대상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朴昌禮교장㊤과 高昌先교사㊦가 제자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있다.

「박봉」과 「격무」에서 「침해받는 교권」으로 이어지는 어려운 교육여건속에서도 묵묵히 「사도」의 길을 다져온 여러 스승들의 높은 뜻을 기리기위한 제1회「한국교육자대상」시상식이 10일상오10시30분 서울世宗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는 李奎浩문교부장관, 韓炳采국회문공위원장, 柳炯鎭대한교련회장, 文榮漢심사위원장, 具本錫서울시교육감등 교육계인사와 내빈, 본사張康在회장을 비롯한 각계인사 5백여명이 참석, 수상자들과 기쁨을 함께 나눴다.

受賞者26명 참석…어제 世宗문화회관

시상식은 金綸周대한교원공제회 이사장의 국민교육헌장낭독으로 시작, 柳炯鎭교련회장의 사도헌장낭독, 文榮漢심사위원장의 심사경위보고 순으로 1시간30분동안 진행됐는데 사회자가 수상자26명을 호명할때마다 장내가 떠나갈듯한 박수가 식장을 렸고 부인과 손을잡고 단상에오르는 수상자들에게는 제자들이 마련한 꽃다발이안겨졌다.

이날 李奎浩 문교부장관은 격려사를 통해『수상자 여러분과 내조의 공이 크신 사모님들께 축하를 드림과동시에 문교행정의 책임자로서 온국민을 대표해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고『교육의 중요성과 스승의 사명을 깊이 헤아려 교육자대상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교육의 앞날에 빛을 더해주신 한국일보社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을 드린다』고 말했다.

李장관은 또『교육자들이 없었더라면 우리민족의 오늘과같은 생존과 번영이 있었을지 의문이간다』고 말하고『민족을 영원히 살아남게하는 역할을 할사람은 교육자뿐』이라고 강조했다.

본사 張康在회장은 인사말을 통해『한국 교육자대상을 제정한것은 한나라와 한겨레의 장래는 자라는 세대의 교육에 달려있고 그 가르침의 성패는 바로 교사의 손에 달려있다는 뜻에서 2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30만교직자의 긍지와 사기를드높여 진정한 사도의등불을 밝힘으로써 새 교육자상을 확립하려는데 목적을 두고있다』고말하고『교육자대상을 제정함으로써 교육사회에서 실의와패배의 교육자상을 몰아내고 진정한사도의 등불이 어떤것이며 긍지와 영광의 교육자상이 어떤 것인지를 밝혀두고자한다』고 말했다.

이날 사회자가『대상수상자, 仁川 동명국민학교 朴昌禮 교장선생님』이라고 호명, 백발의 할머니가 단상에 오르자 장내는 우뢰와같은박수를 보냈으며 한평생을 교육에 몸바쳐온 朴교장의 눈자위엔 물기가 어렸다.

이어 37년간 초·중등학교에서 평교사로있으면서 교육에 몸바쳐온 濟州五賢중학교 高昌先교사(60)가 부인과 나란히 단상에 올라 교육자 대상을 받았는데 부부는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달려온 옛제자들이 마련한 꽃다발속에 파묻혔다.

뒤이어 각 시·도별로 뽑힌「스승의 상」수상자들도 부부가 나란히 단상에올라수상했다.

대상 수상자들은 상패와부상으로 5백만원, 스승의상수상자들은 상패와 부상으로1백만원씩을 받았으며 柳炯鎭 대한교련 회장과 徐龍澤 대한 사립중고등학교장 회장으로부터 각각 기념품도 받았다.

이날 영예의 대상을 받은 朴교장은『감개무량한 따름이다. 오랫동안 교육에 몸바쳐온 보람을 이제 느끼는것 같다』고 수상소감을 말했고 高昌先교사는『이상은 나혼자만이 받는것이아니라 전교사들에게 주는 상이라고생각한다. 더욱 분발해서 후세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상식이 끝난뒤 수상자들은 李奎浩문교부장관과 함께 부부동반으로 서울 進明여고 합창단이「스승의 은혜」를 노래하는 가운데 기념촬영도 했다.

이어수상자들은 낮12시부터 세종홀에서 본사가마련한 뷔페식 오찬을 즐겼는데 이 자리에는 鄭泰秀문교부차관도 참석,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수상자들은 하오6시30분 중앙청국무위원식당에서 李문교장관이 베푼 만찬회에참석, 李장관으로부터 기념품으로 손목시계 1개씩 전달받았다.

수상자 전원에 勳·褒賞 8월초순 海外시찰 떠나

한편 문교부는 수상자전원에게 훈·포상과 표창을 하기로했으며 국·공립출신교사들에게는가산점을주기로했다.

한편 대상수상자2명은 본사주선으로 세계일주여행을, 「스승의상」수상자 24명은 오는8월초 문교부주선으로 15일간 동남아 시찰을 떠난다.

4年만의 再會

歸國독창회 가진 金淸子씨

움츠린가슴 활짝펴준 초여름밤 熱唱

온국민이 共有하는 크고작은 기쁨중에 좋은 예술가를 가진 기쁨처럼 빛나는게 또 있을까. 독일 오페라무대에서 활약하다가 잠시 귀국한 메조·소프라노 金淸子는 9일저녁 그의 독창회에서 이 소중한 기쁨을 새삼 확인시켜 주었다.

세종문화회관의 그 큰홀을 다메우고 계단과 뒷자리에까지 꽉꽉들어선 팬들앞에 4년만에 나타난 그녀는 질풍노도처럼 격렬하게, 바다처럼 넓고 깊게, 연극배우처럼 드라마틱하게 청중을 휘몰아갔다.

「戀人의 詩」에 바그너가 곡을 붙인 「베젠돈크의 5개의 詩」와 R·슈트라우스의 가곡에 깊이 빨려들었던 청중은 그녀가 우리가곡「그리운 금강산」을 뜨겁게 끌어안을때 함께 뜨거워졌으며 자신들의 가곡도 아름답다는것을 또한번 느꼈다.

지난63년 進明女高를졸업하고 派獨간호원으로 한국을 떠났던 그녀는 9년만인 지난 72년 멋진 오페라가수로 변신, 고향에돌아왔었다. 아우스부르크 음악학교와 오스트리아의 빈·아카데미에서 수학하고 스위스의 베른·오페라단에서 활약하다가 귀국한 그녀를 처음에는 알아보는 사람조차 몇명 없었지만 그녀는 독창회와 오페라를통해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기 시작했고, 그녀의 독창회는 유료관객으로 초만원을 이루는 음악계의 「異變」을 낳았다.

지난 78년 그녀는 人氣의 절정에서『노래에만 정열을 쏟고싶다』는 말을남기고 한국을 훌쩍떠났다. 그녀가 예술가가 되도록 도와준게 없었던 고국은「할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뜨겁게 고국을 그리워했고 고국무대에 데뷔한지 꼭 10년이되는 올해를 결코 잊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이번에 독일로 가면 뒤셀도르프·오페라단으로옮겨갈것이라고한다. 함부르크로, 뮌헨으로, 베를린으로…독일오페라의 심장을 향해 한발한발 돌진해간후 바이로이트의 바그너축제무대에 서보는것이 바그너歌手로서의 꿈이라고 말한다.

연달아터지는 大型事故와 불경기,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시달려온 시민들은「뜨거운 가슴의 예술가」金淸子를 맞아 찌푸리고 움츠렸던 가슴을 한꺼번에 풀면서 감동적인 초여름밤을 함께 보냈다.『브라보! 金淸子』그녀는바이로이트축제를정복하고 돌아와 다시「그리운 금강산」을 뜨겁게 열창해줄것이다. 【張明秀기자】

"비상 근무체제로 긴급사태 對備를"

盧內務 大邱시찰

【大邱=裵璞哲기자】盧泰愚 내무부장관은 10일『내무 공무원은 언제나 비상근무체계를 확립, 긴급돌발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있도록 대비책을 세우라』고 지시하고『우리가 지금까지 땀흘려일해온 보람을 거두기위해 더욱 확고부동한 자세로 국민을 이끌어 나가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盧장관은 이날 大邱市와경북도를 순시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공무원이 의연한 태도를 지니지 못할때 민심은 흔들리고 국가의 안녕을 기할수 없을것』이라고말했다.

『大邱는다른도시에비해 나무가 적은편』이라고 지적, 『범시민 식수운동을 전개, 가로수나 정원수를 되도록유실수로 심는방법을연구하라』고 李相熙 大邱시장에게 지시했다.

乘用車로 行人치어 가수 朴一俊씨

10일밤0시40분께 서울東大門區徽慶洞65의24 앞길에서 가수 朴一俊씨(28·본명 朴良業·서울東大門區徽慶洞60의24)가 포니승용차(임시번호2 6 1 6 4)를 몰고가다 길을건너던 朴明用씨(36·청소부·서울東大門區忘憂洞5 0 6의 6)를 치어 중상을 입혔다.

이날 朴씨는 永東에있는 야간업소에서 공연을마친뒤 이틀전에산 차를몰고 귀가하던중이었다.

油印物뿌린 혐의 外大生1명 연행

10일 서울淸凉里경찰서는 한국외국어대학 학생시위와 관련, 文陽洙군(21·스페인어과3년)을 연행, 조사중이다.

학교당국에의하면 文군은 이날낮12시32분께 이학교 사회과학관4층 창문에서『張여인사건 규명』등 9개항목의 구호가든 유인물3백여장을 뿌렸다는 것이다.

빗물 담아논 콜라병 爆發

8일 하오6시40분께 서울九老區 禿山4洞 181의44 趙南中씨(41·상업)집 부엌문앞 땅바닥에 놓여있던 1리터들이 코카콜라병이 폭발, 趙씨의장녀 지연양(15)이 발목에 유리파편이 박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 콜라병은 지연양의동생 성연군(13)이 폭발 30분전에 병속의 빗물을 버리지않고 마개를닫아 부엌문앞에 놓아두었던 것이다.

소 잃고 난후 외양간 고치시렵니까?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불행은 예고없이 찾아오는 법……

보험대리인 김 종 조는 여러분에게 좋은 상담역이 되드릴겁니다.

자동차 — 생명 — 교육 — 사업 — 적금 — 부동산

◎ 모든보험은 한곳에서!

김 종 조 종합보험은 신속하고 친절한 봉사가 자랑입니다.

651 BLOOR ST. W.

535—0028
535—7200

김종조 종합보험 대리점

축구代表팀 「戰術」이 없다

印·印尼와 拙戰… 팬들 失望

득점력·門前처리未熟 여전
다양한 攻擊型 개발아쉬워

한국대표팀이 제12회 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서 계속부진한 플레이를 연출, 印度아시안 게임을 5개월앞두고 심각한 적신호를 울리고있다. 한국은 이번 대통령배국제축구 예선A조에서 10일현재 2승1패를 기록, 준결승진출은 무난하지만 3차례의경기를통해 전술빈곤의 단조롭고 답답한 공격을 되풀이, 축구팬들의 실망을 고조시키고있다.

5개월앞둔 印아시안게임 赤信號

지난5일 개막경기에서 한국이 보여준 경기내용을 상대(PSV아인트호벤)가 상대였던만큼 어쩔수 없었다하더라도 인도네시아, 印度와의 경기에서도 답답한 장면이속출, 攻守陣의 톱니바퀴가 제대로 맞지않는 구멍뚫린 전력으로 과연印度아시안 게임서 우승을 지킬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일으켰다.

9일저녁 釜山서 열린 對印度전은 졸작이었다. 한국은 90분동안 20여개의 슛을 날렸으나 1골도 自力에의해 성공시키지 못하고 후반20분 印度수비선수의 자살골로 결승점을 기록, 골결정력과 볼 문전처리능력이 제자리걸음을 하고있음을 증명해 주었다.

한국의 공격은 융통성이없어보였다. 쇼트패스에 의한 중앙돌파공격이 여의치 않으면 崔淳鎬(또는 朴成華)를 상대문전에 박아놓고 외곽에서 센터링, 헤딩 슛 또는 리바운드 볼로 득점을 노리는 단조로운 공격패턴을 보였는데 이 작전이 봉쇄당했을때 한국은 제3, 제4의 공격카드를 동원하지 못했다.

상대수비의 중앙이 두터울때 돌파구를 열어주는것은 윙 플레이. 왼쪽날개 丁海遠이나 오른쪽의 邊炳柱는 아직까지 감탄을 일으킬만한작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새로운 공격의 길도 개척하지 못한 느낌을 주고있다.

한국공격진의 최대약점은 마지막 단계에서 일을 처리내는 스트라이커가 아쉽다는 점이다. 상대 페널티에리어 안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잡았을 때에는 1백% 득점에 연결시켜야 한는데 밥상에 오른고기를 놓치는 한심한 일이 비일비재했다.

현 한국대표팀 가운데서 朴成華는 76년 몬트리올올림픽 예선때 멤버였고 80년 모스크바올림픽 예선때에는 趙廣來와 丁海遠이 선발되었다. 이 3선수를 제외하면 신진들인데 신진다운 패기와 파이팅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한국팀은 올해들어 印度네루 골드컵대회, 韓日정기전, 西獨뒤셀도르프 초청경기, 킹스컵대회등에 계속 출전했으므로 국제경험부족을 출전의 이유로 내세울수 없게되었다. 흐트러진 팀웍을 가다듬고 짜임새있는 전술을 익혀 아시안게임에 도전하지 않으면 우승은 어려울지 모른다. 【安奉煥기자】

◇朴成華의 다이내믹한 헤딩 9일 한국—印度 A조경기에서 朴成華(右)가 印度 선수를 제치고 헤딩하고 있다. 【釜山=金龍逸기자】

교민의 벗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마스코트·포스터등 五輪디자인委 구성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10일 올림픽디자인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디자인전문위원회는 88올림픽 마스코트·포스터등 디자인을 심의하게된다.

◇위원명단

▲위원장=趙英濟(서울대교수) ▲위원=韓道龍·韓東心(이상홍대교수) 柳漢國(홍대〃) 閔哲泓(서울대〃) 鄭時和(국민대〃) 金永起(이화여대〃) 金石年(오리콤대표) 南廷然(제일기획상무) 李鍾培(연합광고대표)

亞洲올림픽 評議會 本部유치申請 접수

【뉴델리9日路=聯】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는 회원들로부터 평의회 상주본부 유치신청을 받고있다고 C·L·메타OCA사무총장이 9일 밝혔다.

메타총장은 아시아 경기연맹(AGF)을 전신으로한 OCA 34개회원국에게 유치신청에 관한 공한을 보냈으며 신청을 낸것으로 보이는 회원국으로는 한국을 비롯 日本 印度 쿠웨이트 사우디등이 유력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OCA상주본부가 설치되는 국가는 1년에 10만달러를 출연해야하며 OCA임원들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少年體典 입상자 정밀檢査를 실시 五輪有望株발굴

88년 서울올림픽에 대비, 유망신인선수 발굴작업을 벌이고있는 체육부는 10일 잠실에있는 서울체육고에서 大田소년체전 입상자96명(서울81, 강원15명)을 대상으로 체력 체격 생리 검사등 46항목에 걸친 정밀 테스트를 제1차로 실시했다. 이날 테스트에는 68명의 전문요원이 동원됐다.

한국、印에 辛勝

대통령盃國際축구 自殺골로 1點

【釜山=安奉煥기자】 한국대표축구팀은 9일저녁 구덕경기장서 벌어진 제12회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 5일째경기에서 후반20분 교체기용된 FW 李泰昊의 긴 센터링볼이 印度수비선수 몸을 맞고 골인되는 자살골로 행운의결승점을 얻어 1—0으로 승리, 2승1패로 준결승전문턱에 다가섰다.

한국은 이날 일방적인 공격을 폈으나 공·수연결의 부조와 결정타 불발로 문전공포로만 그쳤다.

◇제5일전적

▲A조

바레인 1 (1—1, 0—0) 1 인도네시아 (1무1패)(1승1무1패)

한국 1 (0—0, 1—0) 0 인도 (2승1패)(2패)

雲湖高9연승 대통령旗장사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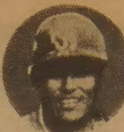
제19회 대통령기쟁탈 전국장사씨름대회가 34개팀 4백50여선수들이 출전한 가운데 10일 문화체육관에서 개막, 첫날 고등부단체전서 雲湖高는 晋州商 馬山商을 연파하고 9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서는 강호인 大邱 永信高가 준결승서 馬山商에 6—1로 패배하는 이변을 낳았다.

李鍾道 너무잘때려 "不運"

3壘打대신 홈런날려 사이클히트 놓쳐

프로야구



◇李鍾道

青龍, 홈팀 롯데를 11·2大破

李鍾道의 2회초선제 솔로호머를 신호탄으로 MBC青龍이 3회초 5개, 4회초 4개의 소나기 안타를 퍼부어 롯데자이언츠의 선발 盧相守 구원투수 崔玉圭를 KO시키고 11—2로 대승했다.

MBC5번 李鍾道는 2회 홈런, 3회 2루타, 4회 단타를치고 프로야구 최초의 사이클히트를위한 3루타를 고대했으나 9회말 오히려 홈런을 날리는바람에 대기록을 놓쳤다.

그러나 李는 2·9회 솔로홈런등 5타수4안타 4타점 3득점을 올렸다.

10일 釜山구장 홈팬들앞에 나선 롯데는 난파선과도같은 처참한 패배를 당했다. 金用熙 金一煥이 부상으로 결장하고 안타불발, 수비불안으로 MBC의 집중포격을 감당치 못했다.

3연패로 부진했던 MBC는 안타14개를 터뜨리며 통쾌하게 승리, 16승16패를 기록했으며 8연패만에 1승을 얻었던 롯데는 다시 내리막길로 떨어져 11승21패를 기록했다.

MBC의 좌완 柳種兼은 9회동안 5안타 2실점으로 완투승했다.

◇10일전적

◆부산

MBC 015 300 011 — 11

롯데 000 100 001 — 2

▲홈런=李鍾道(2회·9회·MBC) 金容哲(9회·롯데)

◇전기중간 순위

팀	승	패	승률
① OB	23	7	·767
② 삼성	21	12	·636
③ MBC	16	16	·600
④ 해태	14	17	·452
⑤ 롯데	11	21	·375
⑥ 삼미	9	21	·300

朴商範 1·2·3壘打

仁川高, 大邱 聖光에 콜드게임勝

中高야구 選手權

프로야구 釜山경기서 李鍾道(MBC5번)가 너무 잘쳐서 프로 첫사이클 히트를 놓친10일 서울운동장에서는 仁川高루수겸 6번 朴商範이 너무 잘던지고 잘쳐서 역시 사이클 히트의 찬스를 놓쳤다.

仁川高 우완에이스 朴商範은 제37회전국고교야구 6일째 2회전경기에서 1회말 좌전안타 3회말 중월2루타 6회말 중월3루타를 날리며 4타수3안타 4타점·2득점을 기록하는한편 재치있는 피칭으로 大邱聖光高타선을 4안타 2실점으로 막아 10—2 7회콜드게임승을 거두었다.

仁川高는 1회말 첫공격에서 5번李景珉의 2타점우월3루타 6번朴商範의 좌전적시타등 집중5안타 1희타 1포볼 패스트볼 2적실등으로 대거5점을 거둬들여 대세를 결정지었다.

3회말에는 朴商範의 중월2루타등 3안타로 2점, 6회말에도 朴의 2타점 끝내기 3루타등 2안타2포볼로 3점을 획득, 게임을 마무리지었다.

◇제6일 2회전

성광고 020 000 0 — 2

인천고 502 003 × — 10

〈7회 콜드게임〉

亞洲청소년 籠球 남자代表팀 확정

대한농구협회는 오는 10월5일부터 20일까지 마닐라에서 열리는 제7회아시아남녀청소년농구선수권대회남자대표를 결정했다.

여자대표는 16명을 선발 코칭스태프가 확정되는대로 최종12명을 선발한다.

◇남 자

▲감독=李鍾熙 ▲코치=金東園 ▲선수=崔喆權 金允皓 俞在學 鄭德和 韓基範 金星旭 金裕宅 金潤錫 李信煜 許載 林達植 徐大成

◇여 자

▲코치=秦佳一 ▲선수=金英姬 金亨淑 金順愛 李美子 金恩淑 金玉姬 魏明順 李恩錫 朴贊美 任三淑 文敬子 成貞兒 鄭明姬 趙文珠 嚴美淑 崔京姬

전국種別 핸드볼 東亞高 준준결에

제37회전국종별핸드볼선수권대회 3일째 경기가 10일 잠실종합체육관서 속행, 남고D조서 釜山東亞高는 麻浦高를 32—22로 격파, 2승으로 D조 수위를 차지하여 8강이 겨루는 준준결승에 진출했다. 남고A조서 釜山大東高는 金堤農高를 26—21로 제압, 2승을 올렸다.

◇제3일 전적

▲남고D조

동아고교 32 (18—16, 14—6) 22 마포고교 (2승)(1패)

▲동A조

대동고교 26 (14—7, 12—14) 21 김제농고 (2승)(2패)

▲동B조

대전체고 31 (19—7, 12—7) 14 대동기공 (1승)(1패)

▲남중부리그

부곡 19 — 16 중화 (1승1무)(1패)

▲여중A조

동일 25 — 5 비봉 (1승)(2패)

▲동B조

동방 13 — 11 창문 (2승)(1패)

▲동C조

문정 14 — 1 대방 (1승)(1패)

「돈방석」위의 黑白대결

홈즈-쿠니 내일 世紀의타이틀戰

對戰料수입만 각각 70億원규모

프로복싱세계 헤비급 타이틀전 흑백대결이 12일 상오11시반(한국시간)美國네바다州 라스베이가스 시저스 펠리스호텔 특설링서 펼쳐진다. WBC 흑인챔피언 래리·홈즈(32)와 백인도전자 제리·쿠니(25)간의 세기의 흑백타이틀매치를 앞두고 백인팬들은 제리·쿠니가 홈즈를 뉘고 59년 잉게마르·요한슨(스웨덴)이래 흑인들이 독점해왔던 王座를 되찾아 달라고 흥분하고있다. 또한 두선수는 모두 무패를 기록하고있는 철권이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美國흥행계서는 홈즈의 우세를 점치고있다. 챔피언 홈즈는 39전전승(29KO) 무패。

〔홈즈〕 11차례防禦戰 10KO勝의 强펀치

◇홈 즈

11차례의 타이틀방어전을 치르는동안 10차례 KO승을 거두는 강펀치를 자랑하고 있다. 1·89cm에 강력한 오른쪽 훅과 스트레이트를 주무기로 하는 홈즈는 79년 3차 방어전때 현 WBA 챔피언 마이크·위버도 12회 KO로 제압한바 있다. 무하마드·알리, 켄·노턴등 한때 헤비급 정상을 주름잡았던 철권들도 홈즈에게 KO패당하고 링을 떠났다. 그러나 홈즈는 체력이 강세를 보이고 수비가 불안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쿠니〕 「가장完璧한 레프트」의 KO率 84%

◇쿠 니

미남인 쿠니는 25전승(21KO)에 KO율 84%를 기록, 75%의 홈즈보다 펀치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쿠니는 초반에 강해 켄·노턴을 20초만에 무너뜨렸으며 1회 KO승이 8번, 2~4회 KO승이 10번이나 된다. 키 197cm이지만 몸의 균형이 잘 잡혀있고 가장 완벽한 레프트펀치의 소유자라는 평을 듣고있다. 쿠니는 홈즈보다 7세나 젊어 스태미너서 강점을 갖고 있다.

이번 타이틀전의 흥행규모는 4천~5천만달러(약2백80억~3백50억원)로 복싱사에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다.

두복서는 각각 1천만달러(약70억원)씩의 대전료와 수익금의 35%씩을 받도록 되어있다.

수입금을 보면 입장료수입 6백만달러, 극장·TV수입 2천만달러, 유선TV 수입 5백만달러등 3천1백만달러로 추정된다.

이밖에 전세계에 중계되는 위성중계료와 광고수입을 합치면 총액 5천만달러에 달할것으로 보인다.

◇양선수 비교표

홈즈		쿠니
32	나이	25
189cm	키	197cm
9년3개월	경력	5년4개월
39승(29KO)	전적	25승(21KO)
75%	KO율	84%

지금까지 사상최고의 흥행기록은 슈거·레이·레너드와 토머스·헌즈간의 웰터급 통합타이틀전의 3천9백만달러。이 경기에서 레너드는 8백만달러를, 헌즈는 5백만달러의 대전료를 받았었다. 【金仁奎기자】

美 드라큘라映畵로 자리굳힌 퀸
邦畵 출연위해 한국에

「드러큘러의 핏발」「드러큘러 최후의 공포」등에서 크리스토퍼·리와 함께 끔찍한 흡혈귀로 출연했던 퀸·크리스터퍼(37)가 드러큘러영화에 출연하기위해 한국에 왔다.

출연작품은 泰昌영화사가 제작하는 「관속의드러큘러」(원제 드러큘러82). 지난 5월말 크랭크인 한 이 영화에서 퀸·크리스터퍼는 외국에 유학중인 한국여학생의뒤를 쫓는 드러큘러백작으로 출연한다.

6월초 내한, 영화촬영에임하고있는 퀸은 『드러큘러역은 여러차례 해보았기때문에 자신을 갖고있다. 그러나「관속의 드러큘러」에는 미국작품과는 달리 섹스신, 신비한 힘을 가진것으로 설정돼있는 불교도와의 싸움장면이 들어있어 힘이 든다』고 토로했다.

그는 한국영화인들의 제작태도가 진지하고 열성적이라며 『지금까지 출연한 어느영화보다도 애착이 간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촬영기간은 40일간으로 계약돼 있는데 『계약기일이 약간 지나더라도 꼭 시사를 보고 가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관속의 드러큘러」에 출연중인 퀸·크리스터퍼。

Digital Excellence DX

새로 나왔읍니다!
DIGITAL EXCELLENCE
ORGAN 계의 새로운 혁명!

TOTAL DIGITAL CONTROL
DX SERIES…

오리지날 악기의 음색을 완벽하게 재생하는 새로운 성능의 전자세대가 DIGITAL CONTROL로 다가 왔읍니다.

지난 반세기 이상을 연구발전한 결과 가와이는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는 전반악기 회사로 비약 발전함으로 타사의 추종을 불허하게 되었읍니다.

가와이 DIGITAL ORGAN은 250개 회로의 특허로 등록되었 기에 향후 수년동안은 아무도 이같은 제품을 모방할 수 없게되었읍니다.

※저희 Dealer에서는 본사에서 Organ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무료로 개인지도를 해드립니다.

Markham Place
2900 Steeles Ave. E.
Thornhill
☎ : 881-8211

가와이 Key Board Center
(모짜르트 Music Center)

Hill Crest Mall
9350 Yonge St.
Richmond Hill
☎ : 883-9407

교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족할만한 광고효과를 볼수 있는
한국일보 광고를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저희는 여러분의 사업이
저희 광고로 인해 더욱 더 번창하며
튼튼한 기반을 갖게 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여러분께 보다 친절한 마음으로
신속·정확히 서비스하는 것이
저의 맡은바 소임이라 생각하고
정성껏 여러분들의 광고를 살펴 드리겠읍니다.

☎ : 533-2361～4

월～금(9:00～6:30), 토요일(10:00 ～5:00)

한국일보 광고국

한국인의
화초 도(소)매상
가장 저렴한 가격
전화 : 691-6768
곽 덕열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한국인의 도매상
한 인
연합상사
25-27 Rangemore Rd.
☎ : 251-6578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신축 복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 669-5784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정성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부 원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식 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식 품 점

한 발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전화: 248-513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삼 복 식 품 주 7일 영업,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생 선

K & R Sea Food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전화 : 259-1585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양 장 점

센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 류 수 선

의류수선, 가내봉제 상세한 문의 바람
전화: 530-1046 10a.m.~5p.m. 368-7258 6p.m이후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히팅·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도 서 판 매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이삿짐및 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 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크로바인쇄소
3351 Lakeshore Blvd. W.
전화 : 251-9587(B) 252-7491(R) 위 정 남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자수(수예)

미싱자수 커버, 누비 커버, 꽃수, 명찰, 마크
주문및 판매 (언제든지 전화문의 환영)
700 Wilson Ave. Downsview 전화: 635-7154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싱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 533-2157

AL'S ESSO Service
Mechanics Repair (All Maker & Model)
Tune-up, Break Repair, Electronic Repair,
Tire & Battery (한국분에게는 염가로 친절봉사해드림)
400 Front St. W.(C.N.Tower 옆)
전화 : 596-6902. Mechanic 최 양호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연두·이건학

자동차 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HUMBERVIEW MOTORS
G.M. (시보레·올스모빌)
전화 : (B) 236-1011, (R) 763-1155 손 명철

노스 · 욕.시보레
O. 시보레, 올스모빌, 각종 중고트럭
O.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O.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부동산(매매)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섭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 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장 의 사

장 의 사 (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충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영정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전화:745-6792(Mr.우)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강용한약전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보약제와 신경통약이 다량 수입되었읍니다.
교민들에게 특별 염가 제공코져 합니다.
전화문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 (465 DUNDAS W.)
전화 : 596-7373 최 호 권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531-7505 시 춘봉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전화 : 530-0522 531-4165(R)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병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정장우 회계사 (PAUL C. CHENG)중국인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625 Dufferin St. Ste.407 (B)636-3616 (R)690-7153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45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매 · 도매함
16 Osler St.
☎ : 762-7255, 7256
762-2700

구 인

직원모집(6명), Steeles & Warden Area
약간의 영어를 구사하실수 있는 여자분으로 가벼운 공장일(Neither dirty nor heavy)을 하실분, 처음 Starting Pay는 시간당 $4.50이며 특히 아래주소근처에 사시는 분이면 더욱 좋겠읍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직접 475-8748(Mr. Magi)로 연락하시거나 한국일보 Miss 박을 찾아 문의하십시요.
100A Gibson Dr, Markham, Ont.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535-0708 박 명 진

Store Manager구함 (경험요망)
Downtown 지역
전화 : 368-8138

지렁이잡이 하실분 구함.(동부지역) 오후 5시에서 6시사이에 연락바람.
전화 : 264-3758 (Mr. 최)

경험있는 Cashier Part Time 구함.
주 2일정도 (Jane×Finch 지역)
전화 : 665-3825 오후8시이전 연락바람

동양, 서양 음식점 동업기술자 구함.
7월1일부터 배달도 할예정. 운전면허증 있는 젊은사람
전화 : 274-7010 (Mr. You)

주방헬퍼(남자)구함
628 Bloor St. W.

가게 Helper 구함. (남자)
Eglinton & Bathurst Corner
전화 : 787-6970

치과에서 일할 Receptionist 구함.
영어와 한국어를 할 수 있어야 함.
전화 : 535-2798, 233-9454
781-9591 (저녁 6시 이후)

경험이 2년정도 되는 분으로 한국자개에 관해 조예가 있으신분 구함(시간당 $5.00)
전화 : 665-8233

혼자 계신 할머니 방이 필요하시면
연락해 주세요. 서쪽지역.
전화 : 245-6217

Donut Shop에서 일하실 남자분 구함.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월~금,토)
전화 : 531-2689

여권 분실

여권번호: R 296574
발행일자: 1979년 4월 23일
소지자명: 김 익균
분실날자및 장소: University & Dundas(81년 6월경)
연락처 : 743-2373

구 혼

결혼상담 , 직업소개(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우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884-5573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일은행	865-0456

매매및 양도

Cash Register Sharp
ER-2533 전화: 364-7943

자동차 급매. 75년식 벤츄라 4 Dr.
P.S./P.B Auto-Trans, 260V8
전화 : 746-4289 Mike

Variety Store Special !
위치 : Oshawa Main St. 렌트 : $700
넓이 : 1250 sq.ft. 주매상 : $4,000 리스 : 6년
가격 : $39,000 + 스탁 (전부 현금요구)
9 door working cooler와 3 Bed Room Home 포함.
Bagot Realty Inc. Realtor.
1-579-4010
after hours, Call Frank Magnus 683-8154

모든 면허가 나와 있는 Restaurant(Tavern) 급매
중국음식과 한국음식을 겸해서 할수 있는 좋은 장소임.
매우 좋은 조건의 Rent와 Long Lease. 좌석: 156석
위치 : 21 Vaughan Rd.
Ask Paul or Ivan 656-9503

야마하 피아노 스튜디오 싸이즈.
(STUDIO SIZE)
전화 : 766-8849 Mr. 문

이훈모 부동산
1) Variety Store 매매 (짧은 영업시간)
주매상: $4,000, 렌트: $850 리스: 5년+5년
아스킹: $40,000 (2 Bed Room 아파트 포함)
2) Donut Shop
주매상: $6,500 아스킹: $220,000
리스: 20년, 다운페이: $100,000
이훈모 부동산 (전화: 225-1204)
전화 : 225-1204

성업중인 Hamburger Franchise Restaurant 급매
꼭 관심있으신 분만 연락. 내방 바람.
Peterborough, Ont. 전화: 1-705-748-9722 (Mr. Kim)

Convenience Store 매매.
주매상 : $5,000. 리스 : 5년+5년.
렌트 : $698. 가격 : $45,000+스탁.
위치 : East of Jane & Bloor지역
주소 : 361 Windermere Ave.
관심 있으신 분의 내방요망. 주중 9:00a.m~18:00p.m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19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399 etc.
937 QUEEN ST. W.
364-0984 REMA FURNITURE

번화한 관광지역 안에 버라이어티 스토아
성업중임. (학교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음)
넓이 : 2000 sq.ft., 넓은 Parking장 있음.
아스킹 : $139,000 + 스탁. 년 순이익 : $46,000
그외에 2개의 아파트먼트로부터
일년 수입 약 $5,100
Irven DeGraw
691-6111 or 1-705-325-6193
Royal Trust Real Estate, Realtor.

가정 형편상 Fruit & Grocery Store
급매코져함. (Corner Store)
744 Dundas St. W. (Bathurst & Dundas)

6년동안 한주인이 경영했던 성업중인 큰 규모의
Variety Store 매매
넓이: 1700 Sq.ft. 리스: 8년반, Rent: $1,168/mon.
주매상: $7,000이상+토타리오. 아스킹: $93,000+스탁
790 Military Trail(Morningside &Military Trail)
꼭 관심있으신 분의 내방바람.

성업중인 그로서리 가게 건강상 급매코저 함.
(일요일 문닫음) 주매상: $4,000 리스 4년반+5년옵션
전화 : 757-9410

대단히 좋은 거주 지역안에 오랜동안
성업중이던 큰 Variety & Smoke Shop (in Etobicoke)
사업을 크게 일으킬수 있는 좋은 기회임.
Stan Konarzycki
전화 : 236-1871, 622-2365
Royal Trust Corporation

성능좋고 속도빠른 사진 식자기
(SAKEN SPICA - K)를 급매합니다.
문의처 : 한국일보사
전화 : 533-2364 Mrs. 김

성업중인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3,000 렌트: $300(Mon.) 리스: 5년
2988 Lakeshore Blvd. W.

다른 사업관계로 매우 성업중이며 대단히 바쁜
지역의 꽃가게(Retail) 매매. 주변에
Free Parking도 가능함.
넓이 : 3,650 Sq.ft.
전화 : 1-634-9679 John
(오후 6시 이후 연락바람)

---

1) Somke & Gift Shop
주매상 : $5,000. 리스 : 5년. 렌트 : $660
아스킹 : $50,000.
2) Fast Food Take-out Business
주매상 : $5,000. 주5일 Open. 바쁜 네거리에 위치한
Office Building 내.
리스 : 1990년. 렌트 : $830. 아스킹: $225,000
3)번화한 공장지대에 위치한 드라이브인 햄버거·숍
주매상 : $8,000. 리스 : 4년+옵션. 렌트 : 1,700. 아스킹 : $350,000
A. E. LePage (Ontario) Ltd.
Tel: 741-9170 (Mrs. Woo)

Bungalow for Sale (Private Sale)
써브웨이에서 가까운 에그린톤과 베더스트
지역. 7 룸, 큰 리크리에이션 룸, 다용도실등.
관심 있으신분 오셔서 보십시요.
전화 : 783-7954

Franchise(후렌차이즈)
영구적인 안정된 사업체
881-8230 Mr. 윤

Variety Store(Whitby Shopping Mall 센터)
가격: $39,000 주매상: $4,500 렌트: $1,100
3년리스 + Negotiation 전화: 1-579-4507 Mr.Lee

전망좋은 밀크스토아 매매.
휜치×베더스드 지역.
전화 : 222-5370

오타와 지역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소자본으로 인수 가능함.
전화: 1-613-238-3837 Mr. 정

Hardware & House Ware Store
높은 이익과 낮은 Rent, 그리고 좋은 위치에 있음.
928 Danforth Ave. 전화: 466-3423 (죠지)

비즈네스 또는 건물딸린 비즈네스 매매.
현재 코리아타운에서 성업중인 케익점.
661 Bloor St. W. 전화 : 535-86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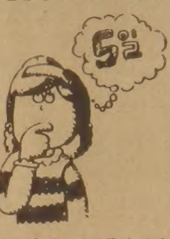
2층 살림집 포함한 Downtown에 위치한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 $3,000
전화 : 769-3265

하우스

〈 방 구함 〉
부엌, 화장실 있는 방 구함.
전화 : 921-1681

한국안내광고는…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경우에 필요하며,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떻게 내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경제적일까요?
보다 높은 광고효과로 밝은 내일을 설계하십시요.



●▲구인 ▲구직 ▲재봉사 ▲찾는사람
▲구혼 ▲여권분실

●▲매매 및 양도 ▲부동산 매매
▲사업체 매매 ▲자동차 매매
▲하우스 렌트 ▲사무실·점포렌트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읍니다. 나로발전하는 한국인 컴뮤니티의 모습을 한눈에 보실수 있는 한국안내광고는 여러분의 사업과 함께 성장하고 있읍니다.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가 구 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소석민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 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p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243-8026(R)

레이몬드미용실 (수잔: 한국인)
●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토랄용) 전화: 255-4745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광고문의 533-2361

백 화 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캐쉬 레지스터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퀸스웨이×이슬링톤 전화 : 252-7377 Mr. 안

사 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
COMMERCIAL · ART PHOTOS · WEDDINGS ·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3시30분~오후9시30분

Peter's Photography.
광고, 결혼식사진 전문. 전화: 270-2709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스 포 츠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 745-1632(R) Mr. 마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 수 웅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한국일보 안내광고＊